"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9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1일(음력 8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야들아 어서 나으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4일 동국대일산병원을 방문해 병마로 고통받는 난치병 어린이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9월 28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진우 스님은 별도의 기념 행사 없이 자비나눔으로 종단 안정과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소아운동치료실에서 배밀이 훈련을 하는 최해진(2세 · 가명) 양을 격려하는 모습. 〈진우 스님 취임 3주년 기사 2면〉

글=김내영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인구주택총조사 앞두고 불교계 역량 '결집'

10월 22일~11월 18일 진행
총조사에 종교인구조사 포함
향후 10년 종교지형 지표로
정부 정책 계획 · 예산 영향
종단협, 전국 신도 현황 점검
조계종, SNS 등에 참여 독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10년 만에 '종교인구조사'가 포함되면서 불교계가 범종단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 종교지형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되는 만큼, 불교계는 적극 참여를 독려하며 정확한 불자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과 사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시행하는 국가 지정 통계 조사다. 5년마다 실시되며, 종교인구 조사는 10년 주기로 이뤄진다. 불교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된 1985년부터 신도 수 1위를 지켜왔지만 2015년 조사에서 개신교(19.7%)에 밀려 2위(15.5%)를 기록했다. 불교 신도 수는 1995년에 1015만4000명, 2005년 1072만6000명에서 2015년 761만9000명으로 300만명 이상 급감했다.

당시 불자 급감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이 불교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사에서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넷·면접조사가 병행됐는데, 불교는 인터넷 응답이 특히 적고 면접 응답이 많아 평균값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 가구원 한 명이 가족 전체의 종교를 대표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족 간 종교가 불일치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통계 결과에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조사 수치가 정부 정책과 예산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과 중장기 계획 수립은 물론,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10년 만에 재조사 시기가 다가오자 각 종교계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8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는 국가의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기독교인들이 적극 동참해 교계에도 의미 있는 통계가 형성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불교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원불교 문패 달기', '가정기원 독경하기' 등 신도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도들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원티스(WonTIS, 원불교 정보전산화 시스템)를 점검해 표본조사 지역 공시 시 신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계는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올해 7월 이사회를 열어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신도수 현황 점검을 주문하고, 표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총조사를 앞두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범종단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9월 10일 열린 조계종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총조사가 종교 지형을 가늠하는 공식 지표인 만큼 불교계 인구와 사회적 위상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미 종단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부서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종단 홈페이지에 참여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해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포교부에서도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매주 정기법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아직 재적 사찰이 없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사랑하면 우리 모두 불교 신자다. 당당하게 불자임을 알려 달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며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하고 있다.

조계종은 조사 기간 종료까지 전국적 홍보와 참여 독려를 지속하고, 이번 총조사가 불교의 사회적 위상 회복과 미래 포교 전략 수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정교분리 헌법 조항에 위배"

조계종 종평위, 입장문 발표…특별법 철회 촉구

지난 8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세 번째 발의된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법은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종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9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대회의 관련 시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지원위원회는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방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은 '국제 청년 교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특정 종교 행사"라며 "교리 전파나 선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종교 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로 종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이며 헌법상 종교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평위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편향적 지원은 종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종교 간 평화로운 공존과 국민화합을 해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불교계, '종교편향' 장동혁 대표 규탄

잇단 종교편향 발언 논란
조계종 중앙종회, 사과 촉구
"다종교 사회서 국민 분열"

"계엄도 하나님 계획",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불교계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 대표는 9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합장 대신 목례로 인사해 종교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는 9월 25일 서울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종교편향적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과 위원 탄보 스님이 참석했다.

종교편향특위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특정 종교 예배 현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사건과 결부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치 문제를 특정 종교의 신학적 표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을 심각한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 대표 선출 후에도 기독교 편향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장동혁 대표의 즉각 사과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 △국민의힘의 당내 종교편향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국민의힘에 공식 발송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항의 방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추석 연휴 배송 관계로 다음 호는 10월 15일자로 발행됩니다.



선명상으로 이끄는 한국불교 재발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선명상 대중화로 한국불교 재발흥을 염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왔다. 사진은 올해 6월 22일 열린 '사회적 약자 초청 법회'와 올해 3월 15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열린 '국민화합 기원 108배 기도법회', 지난해 9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취임 3주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 중흥 초석 다진 3년
선명상 보급–3원 통합 '성과'
AI 전법 등 포교 방향성 확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가 중생들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모든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년 전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며 제시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의 시대, 불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그것이 불교 본연의 역할이자,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진우 스님은 쉼 없이 달려왔다. '선명상 보급'으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수행법을 제시했고, '5초 명상' '우선 멈춤' 등으로 선명상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에 조직개편으로 종단 체계를 정비해 내실을 다지고 운영 효율을 높였으며, 젊은 세대가 공감할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기획해 포교·전법의 방향성을 확장했다.

이처럼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변화의 시도는 불교 진입장벽을 낮추고 '쉬운 불교·친근한 불교' 실현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선명상 대중화'로 국민 평안

선명상 대중화는 국민의 마음에 평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제37대 집행부의 대표 역점 사업이다. 진우 스님은 취임 초기부터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고 명상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계 선명상 보급의 기반을 다졌다.

올해 2월에는 '선명상위원회'를 출범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본격화했다.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 지도법사 51명을 양성했고, 프로그램 운영 사찰·기관 42곳을 선정해 전국 거점을 구축했다. 도심 사찰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1시간 프로그램, '선명상 입문 4주 과정'과 '입문 2박 3일 집중 체험' 등 다양한 선택지도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와 접목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전국 40여 개 사찰에서 상시 체험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도 강화했다. 미래본부는 '선명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선명상 관련 소식과 프로그램 안내, 선명상 영상 콘텐츠 등을 공개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들도 전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4월 1~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2025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국제선명상축제'는 세계적 명상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명상법을 소개했고, 총 157개의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어 경주, 인천, 부산, 세종, 대구, 전주 등 주요 지역에서 열린 선명상축제에는 15만 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대미는 오는 10월 29일 국회에서 개최될 '2025 국제선명상대회 본행사와 국제 컨퍼런스'로 장식된다. '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제안'을 주제로, 해외 선명상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나아가 미래세대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관리하며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복지 현장에서 선명상 활용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선명상 지도법사 수를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선명상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는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애불 입불 사업은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성금 모연과 기도회 등을 통한 대국민 원력 불사로 추진돼 왔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2007년 엎어진 채 발견되었으며, 통일신라 8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은 2023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다라니 기도와 교구본사 주지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발걸음을 이끌었고, 전국 사찰과 단체 단위에서도 약 2만 5000명이 순례를 통해 마애불 입불에 마음을 모았다.

현재 국가유산청과 경주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가능성 검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11월 말까지 안정성 실험을 마무리하고 실험 결과 분석이 완료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입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으로 종무행정 역량 강화

올해 4월에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만에 기존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에서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하는 변화도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삼원으로 분산돼 역동성이 떨어지던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 포교 시스템을 일관되게 운영할 기반이 마련됐다.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통해 국민과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불교의 가치를 현대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강화됐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총무원 청사 화재로 중앙종무기관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어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12월 예정된 화재복구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뉴미디어로 확산되는 '힙한 불교'

불교박람회, 사찰음식대축제, 연등회 등이 잇따라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힙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뉴미디어 활용 포교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조계종은 뉴미디어 포교 확산을 이끌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부터 디자이너, 교수, 예술가 등 각계 불자들의 삶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조계인사이드',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고민을 다루는 '조계종의 미래를 여는 사람들', 조계종 사찰탐방 콘텐츠까지 다양한 코너로 젊은 층과 소통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찬불가 제작과 뉴스 제공 숏츠도 신선함을 더한다. 현재 구독자는 2만 7000여 명에 달한다.

AI 전법 · 스마트 교육 플랫폼 구축

숨 가쁘게 임기 3년을 달려온 진우 스님은 지난 6월 23일, 취임 1000일을 맞아 미래 전법포교 혁신 비전을 밝혔다.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8배를 해 온 진우 스님은 이날도 조계종 대웅전에서 1000번째 108배를 올린 후 △선명상 보급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AI 포교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종단이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본말사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는 한편,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해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전과 선어록, 논서 등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AI 학습 기반에 탑재, 미래 세대가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미래 비전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계종은 이른 시일 내에 AI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기 화쟁위 출범… "대사회 역량 강화"

24명 위원 구성…임기 2년
내년 2월 국회서 세미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제8기 화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불교 대사회적 역할 강화에 나섰다.

진우 스님은 9월 24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8기 화쟁위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사진〉

8기 화쟁위는 다층화한 사회적 갈등 양상에 대응해 인적 구성을 한층 다양화했다. 승가 위원으로는 위원장 정만 스님을 비롯해 반야사 주지 심경 스님, 용화사 주지 성직 스님,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원허 스님, 전 파계사 주지 허주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위촉됐다.

재가 위원은 김희옥 변호사,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강창일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사장,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등이 포함됐다.

위촉식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도 자리해 화쟁위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은 교리의 숭고한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해, 화쟁위원회와 함께 갈등의 매듭을 풀어내는 화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은 "상생과 화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첫 사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에서 '화쟁'을 주제로 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2026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기여할 역량있는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2569(2025)년 9월 15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 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스님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갖춘 사찰

신청절차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면접심사	최종 선정	예비운영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6년 1~12월
지정신청서 서류심사	서류심사 합격사찰 현장실사	현장실사 합격사찰 주지스님 면접심사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지정요건 충족 확인	서류심사 평가표
2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3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2025년 9월 15일(월) ~ 10월 14일(화)
나. 신청자격: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종단 소속 사찰
다. 신청서류
 1) 2026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 자료 포함)
 2) 서류 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www.kbuddhism.com)
라. 신청방법: 서류 원본 및 파일 모두 제출
 1)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 마감일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2) 파일 제출: 제출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파일 제출(yki1124@templestay.com)
마. 접수 및 문의
 1) 접수: (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2) 문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대리 윤지호(02-2031-2032)
바. 서류심사 결과발표: 공문을 통해 개별 통보

※ 신청기간 경과 및 구비서류 누락 시 탈락

전 세계 명상 한자리 '국제명상엑스포' 개막

9월 25일 동국대서 개막식
'명상, 하나 되는 길' 주제
진우 스님 '선명상' 기조강연
11월까지 학술 · 문화 등 다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식이 9월 25일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의 명상을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한국 전통 명상의 우수성을 알릴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명상, 하나 되는 길'이 9월 25일 서울 동국대에서 막을 올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엑스포는 지난 4월 열린 'K-청소년 명상'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학술·문화·체험·교육의 4개 영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9월 25~26일에는 세계 명상 전문가와 해외 석학 6명과 국내 석학 3명이 참여해 최신 명상 연구를 공유하는 명상 콘퍼런스, 명상을 주제로 한국음악·클래식·무용·합창 등을 선보이는 선명상 콘서트, 세계 명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대 정각원장 제정 스님, 총무부장 성웅 스님,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사서실장 남전 스님, 박물관장 서봉 스님, 선명장위원장 금강 스님,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함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현대 사회가 선명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 등 기술 혁신이 몰고 온 변화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선명상은 혼탁한 삶 속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준다"고 밝혔다. 이어 "선명상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학술·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명상의 길을 열어주고, 서로 다른 이들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하는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 주인공으로 이 자리를 체험하고, 바쁜 일상에서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명상법을 안내하고, 명상전문가의 지도 아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명상의 생활화를 이끌겠다"며 "앞으로도 'K-명상' 플랫폼으로 명상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은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차분히 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개막식에서는 뮤지컬 싯다르타 팀의 축하 공연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과 감정조절' 주제 기조강연도 진행됐다.

일본 유출된 보물급 불화 2점 '환지본처'

조계종, 환수 '용연사 영산회상도 · 삼장보살도' 공개


1998년 도난됐다가 환지본처한 대구 용연사 영산회상도.

도난 후 일본으로 유출됐던 불화 2점이 27년 만에 환지본처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일본으로 유출됐던 대구 용연사의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2점을 환수했다"고 9월 25일 발표하고 이를 양평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서 공개했다.

대구 용연사 극락전에 봉안돼 있던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는 1998년 9월 30일 도난돼 그간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일본의 한 소장가가 불화의 기증의사를 밝히며 소재가 파악됐다.

환수된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1731년에 그려진 대형불화로, 1728년 용연사 대웅전 중창 후 1731년에 불화 조성 불사가 진행됐다. 조성 당시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관음보살도, 제석천도 등 5점이 봉안됐지만 현재는 영산회상도만 남았다.

영산회상도의 수화승은 설잠(雪岑) 스님으로 이번 환수를 통해서 설잠 스님이 수화승으로서 그린 첫 불화임이 밝혀졌다.

용연사 영산회상도의 시주자로 영조의 장남 효장 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양어머니인 빈궁 조씨(1716~1751)가 등장하는 점도 주목된다.

함께 환수된 삼장보살도는 1744년 수탄(守坦) 스님이 조성했다. 형식과 화풍에 동화사 삼장보살도를 계승하면서,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권속을 풍부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개인 소장자가 보관했던 관계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두 불화에 대해 보존처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비구니회원장으로 돌봄부터 장례까지 책임진다

〈葬〉

비구니회, 9월 25일 공청회 개최
상조회 가입 · 장례 대책 부족
운영비 마련 기탁 · 후원금 모연 必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고령 비구니 스님의 돌봄부터 장례까지 직접 챙기는 전국비구니회원장(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2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전국비구니회원장(葬)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전국비구니회가 주관해 상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노후 홀로된 비구니 스님들이 외롭게 임종을 맞이하거나, 평생 수행에 매진한 스님들이 인생을 회향하는 마지막 순간을 속가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주목해 2024년 2월 열린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TF팀을 구성,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고 설문지 배포와 설명회 개최로 대중의 공의를 모았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장례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홀로 생활하는 노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살피기 위한 '전화상담 케어'와 49재, 기제사까지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발제 '전국비구니회원장의 필요성과 실행계획'에서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지난 1~4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83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젊은 스님들까지도 회원장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스님은 731명으로 88.2%에 달했다. 스님들 대다수가 아직 자신의 장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입적 후 상주가 돼 줄 스님이 없다고 응답한 스님은 335명(40.2%)이며 응답이 없는 경우도 120명(14.4%)이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전국비구니회에 소속돼 있으며(선학원 스님 포함) 회원장을 신청한 스님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금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언제 어디서라도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설 '봉행위원회'도 조직한다. 비구니회 소임자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체제도 구성한다.

이어 발제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일상케어 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과제'에서 향후 정책적 과제로 △종단 차원의 지속 가능한 승려 노후복지 체계 수립 △지자체-사찰 협력 돌봄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 △스님 돌봄 자원봉사자 육성 △ICT 기술 활용 스마트 워치·건강알림 앱 등 응급 대응 체계 마련 △'불교형 요양 시설' 또는 수행 거주 복합 공간 구축 △홀로 거주하는 스님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등의 제반 연구조사 등을 제안했다. 02-3411-8103

기탁금 : 국민은행 207301-04-139267, 후원금 : 국민은행 207301-04-136815

임은호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개헌' 불발

중앙종회 제154회 임시회서
찬성 30표, 반대 18표 부결

종단 안팎으로 기대를 모았던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제 전환이 불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9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54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4년 1회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찬성 30표, 반대 18표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는 재적의원 57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종헌 개정안 가결을 위한 '재적의원 2/3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38표가 필요했지만 개헌선까지는 8표가 부족했다.

대표 발의자 법륜 스님은 "종단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단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해야 할 제도 개편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연임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헌 개정안은 축조심의 및 토의 과정을 생략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일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의를 진행할 것을 누차 요청했다.

이에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찬반 토론을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결과는 개헌선인 38표를 넘지 못했다. 전국종무원장, 각급 기관장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있었지만 공청회 등 종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대학생 전법으로 '탈북민 포교' 새 장

첫 탈북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
동국대 등 24개 대학 53명 참여
돈관 스님 지은 '無이판사판' 명명
제120회 지역불자육성장학 전달
돈명 · 수불 스님, 황경환 회장 기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9월 23일 24개교 53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이 모인 불교동아리 '무이판사판'을 창립하고 장학금을 수여했다.

동국대를 중심으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연합 불교동아리가 처음으로 창립됐다. 그간 불모지에 가까웠던 북한 출신 주민 포교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9월 23일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무(無)이판사판'으로 명명된 북한 출신 대학생 연합 불교동아리는 동국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24개 대학 5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창립됐다. 초대 동아리 회장은 김지일(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맡았고 지도법사는 정현 스님, 지도교수는 이해님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동국대에는 현재 북한 출신 재학생이 30명이 이르고, 학교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지난 8월 23~25일에는 16개교 23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울릉도 탐방을 진행하며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첫 북한 출신 대학생 연합 불교동아리인 만큼 동아리 명칭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직접 지었다.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동아리 창립의 큰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며 "어디에 머물더라도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국대 내 동아리방을 준비 중이다. 자주 동아리방에 들러 교류하며 좋은 인연을 맺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일 '무이판사판' 회장은 "동국대는 불교의 정신을 토대로 지혜와 자비, 평화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다"면서 "'무이판사판'은 이 같은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삶과 진로를 고민할 때 깊이 있는 통찰과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창립법회 이후에는 '제120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 안국선원장 수불 대종사, 황경환 ㈜진양유조선 대표이사가 각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은 '무이판사판' 회원 53명 전원에게 각각 100만원 씩 전달됐다.

이나영(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2학년) 학생은 "북한에서 태어나 중학교 문턱조차 넘기 힘들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은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면서 "동국대에서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현대인 생활 맞춰 "이제 양력 법회 시대"

조계종 85차 포교종책 연찬회
선지 스님 "형식·내용 변화"
'표준 모델' 개발·보급 제안



양력 중심으로 변화한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음력 위주의 사찰 법회도 이제는 양력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하루, 보름, 재일 등의 음력 법회는 매월 일자가 달라지는데다 평일에 봉행될 경우 직장인이나 젊은이들의 참여가 어렵고, 고령자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사회와 연계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스님)는 9월 24일 서울 아미드호텔 2층에서 '제85차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했다.〈사진〉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은 '법회 사례와 현대적 법회 제안-젊은 세대 맞춤형 중심으로' 발제에서 "양력 법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교화 전략"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스님은 "양력 기준 정기법회는 가족단위의 신앙생활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종단이 양력 법회를 선언하면 교구와 말사 및 신행단체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회 내용과 방법, 설법 등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상주 출가 대중이 적고 사세가 약한 사찰의 경우 매주, 격주, 월 1회 등 여러 주기로 법회를 열 수 있다"면서 "설법 중심의 법회가 바람직하지만 삶의 활력을 주는 선명상, 기도 정진 중심의 법회, 경전을 공부하는 법회, 소통과 나눔의 법회, 생태계 법회 등 여러 가지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종단 차원의 '양력법회 표준 운영 모델'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 붓다정사 주지 지원 스님은 '법회의 중요성과 양력법회의 필요성'에서 양력 정기법회를 주말 법회와 주중 법회로 구분하고, 각각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찬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 사찰에서 양력 법회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발굴하고 널리 전파함으로써 법회가 신도들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주년 동국대일산병원·한방병원 "동체대비 구현"

9월 23일 개원 20주년 기념식
돈관 스님 등 300여 명 참석
'의학동국' 발원…2005년 건립
양한방 의료시스템 처음 구축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9월 23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일산병원과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이 약사여래의 발원을 되새기며 중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병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 의료원 산하 일산불교병원(원장 백용해)와 일산한방병원(원장 김동일)은 9월 23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비를 품다, 치유를 담다, 원력을 심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김기유 법인 이사, 정각원장 제정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이해원 의료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의학동국'의 새로운 100년을 구현하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당시 이사장이었던 영허 녹원 대종사의 원력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1만여 불자와 동문들이 건립기금 800여억 원을 마련했고 2005년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병원을 개원했다.

개원 이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양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건평 2만 8000평에 1000병상을 갖춘 최첨단 병원으로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병원 최초로 차세대 방사선 수술 장비 'ZAP-X'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20살 청년이 된 동국대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이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구현하는 도량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다시 약사여래 대원을 되새기며 모든 의료진이 일심으로 정진해달라"고 격려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원장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병원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해원 의료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의술과 따뜻한 불심(佛心)으로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자와 지역사회를 향한 자비의 의료를 실천하며 구성원 모두가 화합 속에서 성장하는 참된 치유의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생명나눔, 불암사 산사음악회 개최

10월 18일, 생명존중 실천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공모

가을의 풍성한 정취와 생명나눔의 정신을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6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익선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의 사회로 불암사 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열고 마하무용단을 비롯해 배아현, 최우진, 비니쌤, 주권기 등 초대 가수들이 출연한다.

이날 음악회에는 국화축제·불암사 신도회 먹거리 장터·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인스님과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삶의 희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생명나눔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제4회 생명나눔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부문은 대상과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등 4개 부문이다.

추천 양식은 생명나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홍보상·생명상·나눔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7일이며, 시상은 오는 11월 22일 제15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9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에서는 선명상을 비롯해 각종 체험의 장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70돌 중신회, 시민과 광화문광장서 선명상

9월 20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7000여 시민과 선명상 법석 열어
진우 스님, 5분 선명상 실참 '눈길'
정원주 회장 "100년 준비 출발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올바른 신행문화를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의 통합사회를 일구겠습니다. 선명상 대중화로 국민 모두가 마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앙신도회)가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선명상 실천을 통해 이 시대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신도회는 9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과 중앙신도회가 주최하는 '행복바라미'는 2013년부터 시작, 13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기 위해 '선명상'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불자와 시민 70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자리한 광화문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불자들이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은 이 땅의 중심에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펼쳐 나가겠다는 굳은 서원"이라면서 "온갖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춰 호흡을 바라보고 내면을 성찰하며 함께 자비심을 나누는 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70년 동안 중앙신도회는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신도들의 마음에 평화를 전하는 큰 역할을 해 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는 중앙신도회장 소임 당시 광화문에서 진행했던 행복바라미 행사들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명실공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적 단체로 전국 신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음에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는 새로운 도약의 자리기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축사 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 명상 실참을 진행했다. 7000여 불자와 시민들은 도심 속에서 5분 동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내면에 집중하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체험했다.

실참 후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선명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불자뿐 아니라 종교와 이념을 넘어 누구나 선명상으로 스스로 평안해 질 수 있다"면서 "모두가 선명상을 통해 자비행, 자비심을 가진다면 세계가 정토가 되고 극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마지막으로 5초 선명상, 5분 선명상, 쉘패스 선명상, 무시로 선명상 등을 통해 사회가 밝아지고 모두가 평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발원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10대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각 세대 대표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한국불교 100년의 미래를 위한 선포식에서는 일곱가지 실천다짐이 깨달음의 빛이 돼 세상을 환히 밝히길 염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선명상을 비롯해 각종 불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동참자들은 한국불교 100년 미래를 위한 선포식을 통해 실천다짐이 세상을 밝히길 염원했다.


7000여 불자와 시민들은 5분 동안 모든 것을 멈추고 내면에 집중하는 '선명상'을 체험했다.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선명상을 통해 모두가 평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발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사진 가운데)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선명상을 하는 모습.


불교 뮤지컬 '리파카 무량' 등 공연도 이어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복바라미 정신이 평화의 씨앗"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선명상 실천을 통해 이 시대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행복바라미의 정신을 계승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되새기고자 합니다.

온갖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고, 내면을 성찰하며, 함께 자비심을 나누는 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이는 고요한 숨과 마음은, 결코 개인의 평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와 세계를 향해 퍼져 나가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를 일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70년 역사의 중앙신도회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탈종교화, 인공지능 시대 속 국민들의 정신문명을 선도하고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상생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선명상이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심어주고, 우리 사회에 밝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극장된 사찰…'국제불교영화제' 성료

9월 20일, 서울 조계사서 폐막
"깊고 풍성한 불교영화" 기대

8월 23일 구례 화엄사 사성암에서 개막한 국내 유일 불교 영화제 '2025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OIBFF)'가 약 한 달간의 대장정 끝에 9월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막을 내렸다. 5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처음으로 영화관이 아닌, 전국 사찰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111개국에서 1637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최종 16개국 20편이 관람객과 만났다. 개막작 '총을 든 스님' 상영을 시작으로, '스노우 레오파드' '성스러운 돌' 등 작품들이 선보였다. 영화제의 대미는 신동일 감독의 '문경'이 장식했다.

제5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올해 영화제는 권역별 주요 사찰과 연계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불자, 대중과 함께했다"면서 "불교영화를 통해 자비와 힐링과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더 깊고 풍성한 불교영화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송일곤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가 평화와 자비 정신을 확장하는 국제적 불교 대중화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하길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국제불교영화제는 9월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폐막했다. 폐막작 '문경' 관람 모습.

제54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하오며,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꽃처럼 피어나 수행하며 교화하고 계신 2천여 동문 스님들을 그리운 운문의 도량으로 초대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또한 역대 동문 스님들의 숙원이었던 동문회 회칙도 제·개정하오니 동문 스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불기2569(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1시**
장소 **운문사 선열당**
주최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문의 054)372-8800(운문사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일 합장



동아시아 차문화, 통도사에서 만난다

10월 1~2일, 제3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다교류전

한중일 차인들 모여 제다법 시연
성파 스님, 선차 전통 계승 의지
자장 율사 이은 차공양 전통
학술대회로 '차덕론' 담론 확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가 10월 1~2일 '제3회 국제차문화학술대회 및 한중일 제다교류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오른쪽)가 직접 조성한 통도사 차밭을 둘러보는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오는 10월 1~2일 '제3회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 및 한·중·일 제다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 3국이 각국의 전통 제다법을 시연하고 학술적으로 교류하는 자리로, 통도사의 선차(禪茶) 전통을 잇고 현대적 차문화를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0월 1일 오전 10시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 제다실에서 열리는 교류전에는 한·중·일 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국은 통도사 차문화대학원팀이 통도사 차밭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만든 차를, 중국은 호남사범대학 진소법 교수와 절강공상대학 이행철 교수가 항주의 명차 용정차를 선보인다. 일본은 시즈오카현 마쓰이엔 대표 마쓰이 에쓰로, 쓰시마 오이시 농원 대표 오이시 유지로 등 전문가 5명이 녹차와 홍차를 소개한다. 덖음·증제·발효 등 제다법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는 교류전은 세 나라 차문화의 뿌리와 흐름을 조망하는 현장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선차 문화를 계승하고 차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통도사에 차밭을 조성했다. 스님은 "수행과 의식에 필요한 차는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1989년 주지 소임을 마친 후 3000여 평의 차밭을 일궜다. 이후 직접 제다한 햇차를 부처님께 헌공하는 의식을 이어가며 불가의 차문화를 알리고 있다.

통도사는 창건 때부터 차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차를 함께 들여왔고, 통도사 금강계단 주변에서 직접 제다해 부처님께 올렸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 〈통도사사적기〉에는 자장 율사가 '차의 향기'를 뜻하는 화향 제자를 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차공양의 전통을 보여 준다. 고려 시대 통도사는 동을산 다소촌을 운영해 대량의 차를 생산, 부처님께 공양하고 교화에 활용했으며 이는 한국 사찰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기록돼 있다.

국제차문화학술대회는 10월 2일 오후 1시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열린다. '통도사 한·중·일 차의 덕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정민 교수(한양대)가 '한국 차론상의 차덕론', 진소법 교수(호남사범대학)가 '중국 차덕의 변천사 연구', 노성환 명예교수(울산대)가 '일본 차덕의 성격과 기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노경희 교수(울산대), 이행철 교수(절강공상대학), 이병인 명예교수(부산대)가 나선다.

통도사는 "올해 학술대회는 차를 매개로 한·중·일이 학문적·문화적 담론을 확장하는 자리"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자료집과 연구서로 간행해 차문화 보급과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3주년 부산불교환경연대 "생명살림 앞장"

9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방장 정여 대종사 후원금 전달
10월 22일, 녹색불교아카데미



부산불교환경연대는 9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은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9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기념식 및 후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를 주제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기념사에서 과거 범어사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스님들이 직접 산을 돌본 일화를 언급하며 "석탄과 석유,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에게 선물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함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연을 아끼고 보존해야 할 시대"라고 말했다.

스님은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나와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연결돼 있다는 뜻"이라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함께 녹색불교환경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불교환경연대의 활동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불교계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나와 자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며, 나무와 숲, 새와 강물이 모두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다"며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여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환경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동삼종합사회복지관과 부민노인복지관이 감사장을, 김경옥 활동가가 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김화선 전 금정중학교 교장이 운영위원장, 배우 장명갑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향후 활동에 힘을 보태게 됐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후원음악회에서는 '요술당나귀', 여여한중창단, 바리톤 정성민이 무대에 올라 평화와 생명살림의 노래를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반야선원에서 '제4회 부산녹색불교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 시대에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기획됐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등록금은 6만원이다. 010-2134-880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박물관 가족문화축제 성료

9월 20일, 박물관 야외 정원서 불교·전통문화 함께 즐기는 장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이 9월 20일 박물관 야외 정원에서 가족문화축제 '범어사 야단법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불교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제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성보박물관 부관장 도명 스님, 최장락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정종효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비 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흥겨운 분위기를 이뤘다. 특히 주지 정오 스님이 어린이 참가자들과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체험존에서는 머그컵 제작, 에코백 만들기, 비즈 책갈피와 버튼 프레스 배지 제작 등이 진행됐다. 공연 무대에서는 소리꾼 나하은과 피리 연주자 김지윤이 공연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정오 스님은 환영사에서 "앞으로도 해마다 야외 행사로 아이들과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존중으로 살기 좋은 부산"

부산불교교육대학·화엄승가회
9월 20일, 르네시떼 야외광장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과 대한불교화엄승가회(회장 대각 스님)는 9월 20일 사상 르네시떼 야외광장에서 '제8회 자살·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및 경로 孝 대잔치'를 개최했다.〈사진〉 두 단체는 매년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합동행사를 이어오며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봉행한 위령대재와 합동 캠페인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경로 孝 대잔치'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풍성한 음식과 문화 공연, 경품 추첨이 마련돼 흥을 더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남구불교, 추석맞이 자비 나눔

9월 24일, 쌀 3550kg 기부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9월 24일 남구청에 백미 3550kg을 기부했다.〈사진〉

전달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 스님, 오은택 남구청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기탁된 쌀은 남구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지원 스님은 "신도님들과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으니, 청장님께서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주신 쌀은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주 불교계 외국인 스님 주지로 첫 취임

길상사, 9월 21일 주지 명선 스님 취임법회

스리랑카서 12세에 출가한 뒤
2011년 韓서 출가해 수행정진
은사 도제 스님 등 취임 축하
명선 스님 "다문화 사찰로 발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길상사 주지로 취임한 명선 스님(사진 오른쪽)이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사진 가운데), 은사인 도제 스님(사진 왼쪽)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광주 광산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의 안식처인 길상사 주지에 스리랑카 출신 명선 스님이 취임했다. 광주 지역 사찰에 외국인 주지 스님이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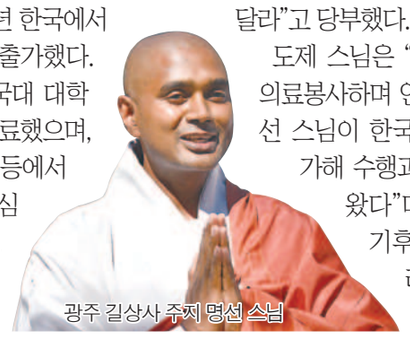
광주 길상사는 9월 21일 대웅전에서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과 은사인 보은사 주지 도제 스님, 총무경상 스님, 원각사 도안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만달라·수담마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백남송 보은사 신도회장, 최창인 아시아밝음공동체 108장학회장, 이영순 전 광주광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신도 15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 축사, 법어, 꽃다발 증정, 축가,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취임사에서 "길상사를 창건한 현고 스님과 은사 도제 스님의 뜻을 이어 다문화 사찰이라는 새로운 원력을 세워 불사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국적과 문화, 언어를 넘어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수행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길상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선 스님은 12세에 스리랑카에서 출가해 켈라니야대학교 불교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1년 한국에서 도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송광사 승가대학, 동국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 법련사, 심곡사 등에서 소임을 맡았다. 또한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 상담·통역·법문 활동을 펼치며 지역 불자와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을 이끌어 왔다.


광주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현고 스님은 법어에서 "명선 스님의 원력은 일불제자로 세계일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더 넓은 도량 마련에도 뜻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도제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하며 인연을 맺은 명선 스님이 한국에서 다시 출가해 수행과 학문을 이어 왔다"며 "추운 한국 기후 속에서도 심리상담, 사회복지, 보육 등 다양한 공부와 정진을 이어 온 만큼 길상사가 다문화 가족들의 쉼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남송 보은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명선 스님의 주지 취임은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길상사가 다문화 가족들의 쉼터이자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법회에서는 명선 스님이 현고·도제 스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며 불은과 원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전주 시민들 '선명상' 매력에 빠지다

조계종, 9월 2일 서고사서
'전주 선명상축제' 개최해
사부대중 200여 명 동참
심주목걸이 등 체험 '다채'


전주 선명상축제에서 선명상 앰버서더 이수정 강사가 싱잉볼 명상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1일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에서 2025국제선명상축제 지역행사인 '전주 선명상축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불자와 인근 부대 군장병, 관내 베트남 출신 청년 등 200여 명이 함께해 선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개회식에서 서고사 주지 해안 스님은 "서로의 눈빛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자 함께 나누는 고요함이 행복"이라며 "이 자리에서 피어난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래 머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축사에서 "명상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이 순간,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에 이미 깨달음이 있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요한 안락과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악그룹 '아퀴'의 전통 국악 축하 공연에 이어 선명상 앰버서더 이수정 강사의 선명상 콘서트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사전행사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총 5개 코스로 운영된 프로그램 가운데 본인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30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 명상을 체험했다.

극락보전에서는 전통 국악의 울림과 호흡을 결합한 '국악명상'이 펼쳐졌다. 명상센터 2층 소강의실에서는 체험형 명상이 이어졌다. '아로마테라피 명상'은 천연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통해 감각을 깨우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호흡명상으로 구성됐다.

'다도명상'에서는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련의 동작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현재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명상 훈련이 진행됐다.

서고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청년경제인불자회(회장 박용석)는 종무소 앞마당에서 '심주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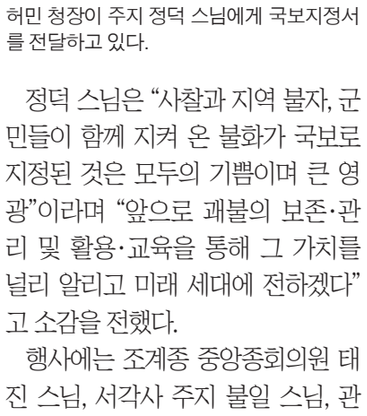
한편, 지난 4월 서울 봉은사에서 막을 올린 2025 국제선명상축제는 오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량사 괘불도 '국보' 지정…국민에 기쁨"

국가유산청, 부여 무량사에 국보 지정서 전달

정덕 스님 "보존 전승 최선"
제13회 산사음악회도 개최


허민 청장이 주지 정덕 스님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의 국보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0일 무량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국보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6일 국보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높이가 14m에 달하는 초대형 불화로 법경·혜윤·인학·희상 스님 등 화승들이 1627년 제작했다.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 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보다 제작 시기가 일러 유사한 도상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정덕 스님은 "사찰과 지역 불자, 군민들이 함께 지켜 온 불화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모두의 기쁨이며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괘불의 보존·관리 및 활용·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 서각사 주지 불일 스님, 관촉사 주지 종봉 스님을 비롯해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박수현 국회의원, 박정현 부여군수, 김영춘 부여군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당진 영탑사 신중도' 41년 만에 환지본처

9월 20일 비로전서 봉안 법회
설정 스님 "도량 수호 상징"


설정 스님이 신중도에 점안 의식을 진행하다.

41년 전 도난당해 소재가 불분명했던 당진 영탑사 신중도가 환지본처했다.

당진 영탑사(주지 원정 스님)는 9월 20일 비로전에서 신중도 환수 봉안 및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설정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회주 수암 스님, 주지 원정 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정혜사 영도 스님, 황침현 당진시 부시장, 영탑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신중도 환수와 봉안을 축하했다.

영탑사 신중도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제석천룡도 계열의 불화로, 섬세한 인물 표현과 전통 불화의 색감이 잘 발현된 것이 특징이다. 1984년 약사전 해체·보수 과정에서 도난당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탑사 측이 올해 봄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침내 영탑사로 돌아온 신중도는 최근 보존 처리를 마치고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보물)이 모셔진 비로전에 함께 봉안됐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원정 스님은 환수 경위를 설명하며 "이번 봉안은 영탑사 사부대중의 정성은 물론, 전국 각지 신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함께한 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점안의식은 설정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증명 아래 점필의식과 축원, 법문 등의 순으로 봉행됐다.

설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신중도를 새롭게 봉안한 것을 계기로 올바른 신행과 계율 실천으로 이어 가자"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 개금불사 회향

9월 20일, 2년간 불사 진행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9월 20일 극락보전에서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좌상 개금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아미타여래좌상(보물)은 1607년 조선 선조대왕 때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된 성보문화유산이다. 2022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의 정밀 진단 결과 내부 소조층의 균열과 개금층 박락 현상이 확인되면서 보존 처리가 불가피했다. 이에 2023년 주지 무공 스님의 발원으로 개금불사가 본격 추진됐다.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아미타여래좌상이 다시 황금빛 옷을 입고 중생 앞에 서게 된 것은 불자들의 정성과 신심이 모아진 원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백양사가 더욱 신심을 돈독히 하고,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데 함께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수륙무차평등대재·산사음악회

9월 20~21일, 괘불도 점안


신삼세불화형식을 취하고 있는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를 모본으로 제작됐다. 주지 경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선운사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550여 년 국가와 왕실, 만백성의 안녕을 발원했던 선운사수륙대재의 복원과 함께 삼신삼세불괘불의 조성을 발원했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수륙무차평등대재와 삼신삼세 괘불도 봉안법회, 제17회 선운문화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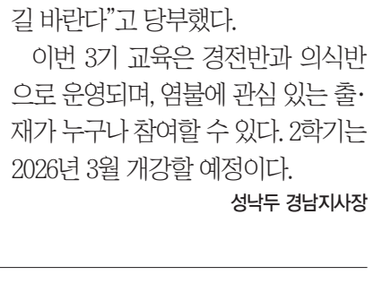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첫째 날인 20일에는 시련, 대령, 사자단 의식, 삼신삼세괘불도 점안이 이뤄졌으며 둘째 날인 21일에는 중단의식 상단권공의식과 관욕의식, 하단의식과 봉송 등으로 봉행됐다.

이번에 점안된 괘불도는 3폭의 삼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상대 불교동아리 연화회, 3주년 법회

9월 22일, 가좌캠 교양관서


외부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힘을 키워 삶의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하는 종교"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화회는 2022년 창립 이후 정기 법회, 템플스테이, 불교 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이어 오며 현재 100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불교동아리 '연화회(회장 천성하)'가 창립 3주년을 맞아 9월 22일 가좌캠퍼스 교양관에서 개강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담산 스님과 지도 교수, 동문, 재학생 13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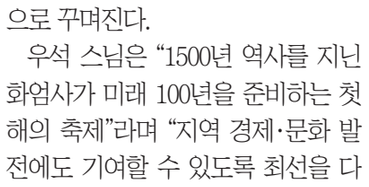
천성하 연화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동아리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담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3기 개강

9월 16일, 개강법회 봉행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원장 환명 스님)은 9월 16일 경남교구 종무원 3층 법당에서 제3기 개강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교구 스님들과 3기 수강생들이 참석해 염불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교육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교육원장 환명 스님은 환영사에서 "염불은 부처님과 중생의 마음을 잇는 가장 원만한 수행법"이라며 "이번 3기 과정에 동참한 수강생들이 정진을 통해 신행과 삶에 큰 원력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3기 교육은 경전반과 의식반으로 운영되며, 염불에 관심 있는 출·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학기는 2026년 3월 개강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0월, 지리산 화엄사는 문화로 물든다

10월 10~12일 화엄문화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내 일원에서 제21회 화엄문화제를 봉행한다.

'바람이 물을 스칠 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화엄문화제는 △故 차일혁 경무관 67주기 추모재(10월 10일) △화엄사 영산괘불탱 괘불재(10월 10일) △제5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회(10월 11일) △화엄음악제(10월 11일) △제2회 지리산대화엄사 구례군 라인댄스 동호인대회(10월 12일) △제5회 어머니길 걷기대회(10월 12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우석 스님은 "1500년 역사를 지닌 화엄사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첫해의 축제"라며 "지역 경제·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행 선사 '사상 로드맵', 데이터로 그려내다

9월 29일,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토픽 모델링'으로 〈한마음요전〉 분석
마음 · 주인공 등 선사 법문 키워드
실존부터 수행까지 5개 주제 형성
주제별 독립 · 연관성 동시 구성돼
'주인공' 사상, 중심개념 정량 확인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20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4회 계절발표회에서 김두식 연구원이 '한마음요전의 토픽 분석을 통한 대행 선사 사상의 다층적 구조 연구'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AI가 상용화되면서 올바른 정보를 분석해 데이터화하는 것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떠오르는 분석 기법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고, 그중에서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숨겨진 주제(토픽)를 찾아내는 데 탁월한 계량적 분석 도구로 평가된다. 대행 선사(2017~2012)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집성한 〈한마음요전〉을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학: 데이터로 읽는 지식과 수행'을 주제로 제2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론이 불교학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한마음요전〉의 토픽 분석을 통한 대행 선사 사상의 다층적 구조 연구'에서 〈한마음요전〉 내 대행 선사의 법문을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김 연구원은 〈한마음요전〉을 분석해 △마음 △생각 △부처 △주인공 △사람 등의 단어가 상위 출현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출현 빈도를 통해 확인된 키워드를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한마음요전〉의 주요 담론이 △불성론적 주체성과 신심의 구조 △실존적 자각과 육신성의 인식 △사회적 실천과 관계론적 존재론 △시공간적 전체성과 우주적 인식 △수행론적 통합과 실천적 완성 등 다섯 가지 토픽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섯 가지 토픽들은 17~23% 정도로 균등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불교학의 핵심 범주와 체계적 관계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드라망'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토픽-1부터 토픽-5까지 각각 실존론-존재론-관계론-우주론-수행론에 해당하는 불교학의 기본 범주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대행 사상의 체계



대행선연구원 제24회 계절발표회 참가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 완결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각 토픽들의 비중이 극단적 편차 없이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대행 선사의 법문이 특정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불교 사상의 전 영역을 균형 있게 다뤘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마음요전〉이 단편적 법문집이 아닌 종합적 사상서임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 사상의 핵심인 '주인공' 개념이 전 토픽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것도 이번 연구의 큰 특징이다.

김 연구원은 "토픽-1부터 토픽-5까지 '주인공'이 핵심 키워드로 기능하는 것은 이 개념이 대행 선사 사상의 시작점이자 목표점의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면서 "전통적 불성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재구성한 이러한 시도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적응 기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와 함께 권호진 SBS미디어넷 국장은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동향 : 불교, 기독교, 가톨릭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2002~2025년 발표된 '종교커뮤니케이션' 주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논문 478편을 시대·주제별로 분석하고, 최근에는 어떤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혁신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지 조명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권 국장은 "불교는 '안정형-점진적 성장형' 모델로 꾸준한 연구를 이어 왔고, 개신교는 '확장형-지속성장형'으로 세 종교 중 가장 활발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했다. 가톨릭은 '간헐형-사건의존형'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 종교는 모두 '사회·문화·참여'라는 공통적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 불교는 대중적 확산과 매체 활용, 개신교는 공동체 중심 신앙 전승, 가톨릭은 교리 전통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현대 사회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강재원)와 공동 주최한 이날 계절발표회는 지난해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KCI 등재지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첫 발표회여서 의미를 더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한마음연구〉의 KCI 등재 이후 대행선연구원의 위상도 상승했다.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의 공동 발표회를 열 수 있던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면서 "'종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지만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이다. 이 같은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용자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발표도 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재원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단부터 미디어, 전략적 설득 기법까지 다양하며 이를 통한 학제 간 연구도 활성화 되고 있다"며 "종교 커뮤니케이션 연구도 그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원 대중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묘공학술상 수상작도 소개됐다. 2022년 제4회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인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묘공 대행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가정하여'를 발표했다.

문화사업단·한식진흥원 "사찰음식, 세계로"

9월 24일 업무협약… 사찰음식 홍보 등 협력 추진
일화 스님 "사찰음식 정신, 세계인에 큰 울림 줄 것"

사찰음식과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연구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식진흥원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9월 24일 서울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식문화 진흥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화사업단이 '사찰음식' 단일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식진흥원이 처음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음식의 계승과 발전, 한식의 국내외 확산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찰음식 자원과 전문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또한 사찰음식과 한식이 지닌 생명 존중·자연 순환·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홍보·전시·조리체험·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국내외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나아가 청정한 먹거리와 수행 음식의 철학을 반영한 홍보 사업을 펼치고, 상호 교육 콘텐츠 협력과 행사 지원,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과 '한식문화공간 이음' 간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교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오늘의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의 전문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식문화인 '한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김장 문화', '장 담그기 문화'에 이어서 사찰음식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음식 관련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지도법사 하경 스님, 김한일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전해웅 한식진흥원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한식진흥원은 11월 16일까지 특별전 '자연과 함께 짓는 밥상, 사찰음식'을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사진 오른쪽)과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9월 24일 서울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야불교문화硏, 산사 인문학 강좌

10월 11일~11월 15일
매주 토요일 반야암서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이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2025년 산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원효 성사의 생애의 가르침'(10월 11일) 오용석 원광대 교수의 '보조국사의 생애와 가르침'(10월 18일) △김희 강원대 교수의 '서산 대사의 생애와 가르침'(10월 25일)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경허 선사의 생애와 가르침'(11월 1일)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의 '경봉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11월 8일)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의 '성철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11월 15일) 등 총 6강이 진행된다.

010-8738-3000

신중일 기자





옻칠로 되살린 암각화…성파 대종사 사제전 개막

9월 23일 울산 문화공간 '만디'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기념전
서운암 수중 설치작, 영상 재현
대표작 '수기맹호도' 등 공개돼
옻밭아카데미 회원 작품도 전시

울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는 9월 23일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성파 대종사 옻칠 한국화 사제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반구천 암각화를 예술로 재해석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 한국화가 울산 시민들과 만났다.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9월 23일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성파 대종사 옻칠 한국화 사제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성파 스님은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마당에 대형 옻칠 작품 '나전옻칠-울주 반구대 암각화'와 '나전옻칠-울주 천전리 암각화'를 수중 전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두 작품을 축소 복사해 아크릴판에 담아 전시장 안 수조에 전시한다. 암각화에 담긴 과거 삶의 흔적과 호흡을 오늘의 예술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성파 스님의 대표작 '수기맹호도'와 '피안으로'도 만날 수 있다. '수기맹호도'는 검은 옻칠 바탕 위에 호랑이 형상을 새기고 자개와 금·은으로 장식해 통도사의 수호 상징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대작 '피안으로'는 흑칠 바탕에 은은한 빛과 반사광을 겹쳐 차안과 피안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제10회 옻밭아카데미 회원 초대전'에서는 성파 스님의 제자들이 옻칠과 나전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겹의 옻칠과 자개 분할, 금·은 장식 기법을 사용해 지역의 자연과 일상적 소재를 화면에 반영했다.

개막식에는 성파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성파 스님은 인사말에서 "울산은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문화의 뿌리가 깊은 고장이며, 태화사는 역사적으로 국방 사찰의 역할을 맡아 나라의 힘을 북돋웠다"며 "오늘날 울산은 산업 도시로 발전했지만 그 바탕에는 전통문화의 맥이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열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건축 대상을 수상한 문화 공간으로, 울산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창조의 장"이라며 "이곳에서 옻칠 한국화 사제전을 개최해 선사시대 암각화와 오늘의 예술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또 "옻칠 한국화는 수행과 예술을 잇는 길이며, 제자들과 함께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그 울림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전시는 울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의 뿌리를 다시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라며 "성파 스님의 작품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물결을 형상으로 드러낸 것과 같아, 보는 이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성파 대종사와 제자들의 꾸준한 예술적 정진이 울산에서 꽃피운 것은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감하고, 울산이 전통과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⑫ 유업보무작자

업보를 만드는 자는 없다

有業報無作者

"여러 힘든 상황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 사찰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는 업보 개념을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오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숙명이나 운명처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다. 붓다가 설한 업보는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에 기초한다. 즉, 여러 조건이 맞물려 의도가 작용하는(業) 순간, 그에 따른 결과(報)가 즉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곧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분노를 내뿜으면 곧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예다. 따라서 업보는 선악을 모두 포함하며, 단지 악행의 대가로만 한정하는 것은 오류다.

업보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연기법의 다른 표현이며, 인과(因果) 법칙과 같은 맥락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 해악이 자손에게 미친다"라는 속담에서도 윤리적 의미가 드러난다.

또한 업보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無我)와 연결된다. 무아는 지금 여기의 '나'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하고 영속적인 주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의 마음, 말, 몸짓과 그 결과만 있을 뿐,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유업보무작자(有業報無作者)', 곧 "업과 그 결과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라고 한다.

우리의 삶은 단지 행위와 그 즉각적인 결과가 이어지는 흐름일 뿐, 이를 주재하는 궁극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상은 나가르주나의 〈중론〉 '관업품'에도 나타나며, 그 뿌리는 초기 경전인 〈상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에 두고 있다. 대승불교의 공(空)과 반야 사상 역시 연기와 무아에 기초함을 알 수 있다.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선종의 물음도 같은 맥락이다. 행위와 그 결과만이 있을 뿐, 이를 따로 주재하는 궁극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별도의 주재하는 자가 없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오직 '한 생각'에 주목하라.

〈화순 불암사 주지〉

동아시아 불화판화 진수 '일본 불화판화'를 만나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전
한국불교 영향 받은 日판화
선광사 삼존불 판화 등 전시


일본 선광사 아마타삼존불 목판화. 백제 성왕이 일본 선광사에 전한 아미타삼존불상을 판화로 제작했다. 이번 고판화박물관 특별전에 처음 공개된다.

서건동진(西乾東震). 예불문에 담긴 이 구절은 불교가 서쪽 인도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전래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불교의 법(法)은 여러 문명권을 거쳐 전해지며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을 활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그림'이다. 불경(佛經) 앞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변상도나 한국불교 특유 대형불화 '괘불'은 경전의 내용 등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글자를 모르던 민초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방편이었다.

한국불교가 다양한 도상들의 불화들이 존재한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상들을 다시 판각해 인쇄하는 '불화판화'가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발달했다. '일본 불화판화'의 진수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전시 '불교 목판화의 꽃 일본 불화판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5년 국가유산청 생생국가유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고판화박물관 일본 불화판화 소장품 1000여 점 중 일본 판화의 진수가 담긴 대형 불화판화를 중심으로 50여 점(판목 포함)을 선별·전시한다.

전시는 장르별로 총 4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판화와 불·보살 판화들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된다. 특히 1부 전시에는 한국불교의 영향을 받은 일본 불화판화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선광사 대형 아미타삼존불 판화'는 백제의 성왕이 일본 선광사에 보내 준 아미타삼존불상을 그대로 판화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성왕이 보낸 '아미타삼존불상'은 현재까지도 선광사의 '비불(祕佛)'로 전승되고 있으며, 7년에 한 번만 대중에 공개된다. 이 같은 이유로 선광사는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에도시대에 판화 판목으로 제작해 대중들에게 도상을 보급하며 포교를 이어갔다.

일본 지은원에 소장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를 판화로 제작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목판화'(에도 시대)도 다시 공개된다.

2부에서는 일본에서 발달한 정토신앙 관련 불화판화인 아미타래영도 판화와 극락 관련 판화들이 소개된다. 염라대왕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 지장보살이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지옥만다라(윤회도) 채색 불화판화'가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 극락세계로 이끄는 대형 '아미타내영도', 세계 최고의 판목 중 하나인 1845년 도쿄 조조지 완성 관경만다라 판목도 소개된다.

3부 전시에서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태장계만다라를 비롯한 밀교판화를, 4부 전시에서는 대형 불화판화를 만나볼 수 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한국과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에도 시대의 인쇄문화 발전으로 다양한 불화판화들이 가정 예배 및 포교용으로 제작됐다. 이를 통해 에도시대 불교는 일본 대중들에게 깊이 전파됐다"면서 "더불어 일본 불교 종단에서는 종파들의 가르침이 담은 도상들을 판화로 제작해 전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 전승과 그 가르침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미륵사지석탑은 왜 손칼을 품었나

국립익산박물관 '탑이 품은 칼' 특별전

2009년 출토 유물 '손칼' 중심
백제 공예기술, 의미 등 조명
5년 간 협업으로 복원에 성공
조성 당시 손칼, 스님 생활용품
이발부터 종기 제거까지 활용

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5년에 걸쳐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출토 손칼.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유구가 나왔다. 바로 '손칼.' 석탑 내 사리장엄구 안에 '손칼'은 왜 비장돼 있었을까. 이를 알아가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내년 2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탑이 품은 칼, 미륵사에 깃든 바람'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5년여 간의 작업 끝에 복원이 완료된 미륵사지석탑 출토 손칼을 중심으로, 백제 불교문화와 공예 기술과 손칼의 불교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9월 23일 열린 언론공개회에서는 복원을 마친 손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009년 처음 발견된 손칼은 639년 석탑에 봉안된 이후 약 1400여 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해 원형을 알기 힘든 안타까운 모습으로 실물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익산·청주·김해 국립박물관의 상호 협업으로 5년 동안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 심층연구를 통해 손칼은 복원됐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은 '손칼'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작은 칼이 필요했던 일상'에서는 쇠 손칼과 뼈 손잡이 등 고대인의 생활 속 칼을 전시하며, 문자생활 도구로서의 기능까지 조명한다.

2부 '흔적, 몰랐던 이야기'는 손칼의 내부 구조와 제작 재료, 봉안 당시 감싸졌던 직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선보이며 3부 '꾸밈을 더하고, 마음을 담아'에서는 손칼이 불교 공양품이자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된 배경을 다룬다.

전시를 따라가다 보면 고려 시대 당시 손칼은 어떤 용도를 활용됐고, 불교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실제 불교 경전에서는 손칼은 수행자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도구로 등장한다. 〈범망경(梵網經)〉은 부처의 계율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칼[刀子]'을 포함한 18가지 기본 규율을 제시하고 있다.

〈비니모경〉, 〈근본설일체유부니다나〉에서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손칼의 용도로 △손톱을 깎을 때 △종기를 짤 때 △옷을 자를 때 △옷에 붙은 털이나 실을 자를 때 △과일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삭발 등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됐다.

박물관은 "손칼은 단순한 절삭 도구가 아니라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계율의 상징이자 정제된 삶의 도구였다"고 설명했다.

복원된 손칼은 공예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칼 손잡이에는 금박 장식 위에 바다거북의 등껍데기를 덧입힌 '대모복채법(玳瑁覆彩法)'이 적용됐는데, 이는 고대 동아시아 장식기법 중에서도 고난도의 기술로 손꼽힌다. 일본 나라(奈良)의 정창원(正倉院)에도 같은 기법이 적용된 손칼 1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이 유물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복원으로 백제에서 해당 기법이 100년 이상 앞서 사용됐음이 확인되면서, 문화 전파의 방향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물관은 "이는 백제가 외래 문화를 수용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창조하고 동아시아에 전파한 주체적 문화 강국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4~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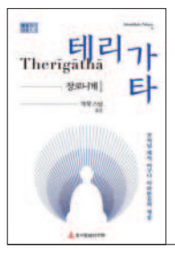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당신이 길입니다	김준영	민족사
3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4	한글 아미타경	김현준	효림
5	관무량수경	김현준	효림
6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7	붓다의 호흡과 명상(1)	정태혁 역해	정신세계사
8	우리말 불설미륵경	원순	법공양
9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10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원학 번역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2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운주사	틱낫한/허우서,허주형
3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 백문백답	이솔	일창 담마간다 편역
4	가 장행복한 공부	아시아문화커뮤니티	청화 지음
5	불멸(1)	지혜의눈	이각 지음
6	불멸(2)	지혜의눈	이각 지음
7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이층버스	원빈스님 강설
8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	운주사	한상희/용정운 그림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지음
10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	맑은소리맑은나라	월호

부처님 비구니 직계 제자의 깨달음 노래



테리가타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만5000원

장로 게송 〈테라가타〉 이어
73 장로니의 522 게송 완역
행장 등 810개의 주해 달아
11월까지 초기불전학림 강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지난해 〈테라가타〉에 이어 최근 〈테리가타〉를 완역했다.

"마음이 잘 삼매에 들고
지혜가 이미 현전하고
바르게 법을 꿰뚫어 보는데
우리에게 여인이 됨이 도대체 무슨 문제랴."

–소마 장로니의 게송 중에서

부처님의 비구니 직계 제자인 73 장로니(長老尼)의 522개 게송을 담은 〈테리가타〉가 우리말로 완역됐다. 〈테리가타〉는 장로니를 뜻하는 '테리'와 게송을 뜻하는 '가타'의 합성어로, '장로니들에 의해 읊어진 게송들'로 풀이된다.

번역을 맡은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지난해 3월, 비구 직계 제자 259 장로의 1279개 게송을 완역한 〈테라가타〉(전 3권)를 출간한 바 있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빠알리 경장인 〈쿳다까 니까야〉에 포함돼 전승되고 있다.

〈테리가타〉에는 게송과 장로니 스님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에, 각묵 스님은 담마빨라 스님이 지은 〈테리가타 주석서〉를 함께 번역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석서는 〈테리가타〉에 등장하는 장로니의 출신 지역과 계급, 출가 계기, 출가 연령 등을 '행장'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묵 스님은 '하나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16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51쪽의 〈테리가타〉를 번역하고, 여기에 810개의 주해를 달아 전체 528쪽 분량으로 완역했다. 〈테리가타 주석서〉에서 각 게송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하고,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청정도론〉,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인용해 보완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권두에 쓴 '해제'다. 〈테리가타〉에 실린 522개 게송 중에는 부처님이 장로니들의 발심을 위해 읊은 26개 게송과 합송자들이 읊은 게송, 다른 장로가 특정 장로니를 위해 읊은 게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묵 스님은 해제와 주해를 통해 이에 대한 출처를 모두 밝혔다. 또 빠알리 용어 해설, 〈테리가타〉의 구성, 게송에 적용된 운율, 〈테리가타 주석서〉의 구성과 전개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묵 스님은 "성차별이 당연시되던 당시, 비구니 스님들의 게송과 행장을 기록·전승한 것은 세계 종교사적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며 "수메다 장로니가 〈테리가타〉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대 모든 사부대중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오(染汚)를 일으키고 탐욕의 빛바램을 체득해 해탈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제22기 초기불전학림에서 〈테리가타〉를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055-322-8579

철학자와 떠나는 유식 여행
〈唯識〉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지음
모과나무 / 1만9000원

'꿈'과 '가짜'로 풀어내는 유식
실재론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불교 철학 가운데서도 유식(唯識)은 가장 난해한 사유 체계로 꼽힌다. "모든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낸 환상일 뿐"이라는 선언에 곧장 의문이 솟아난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책상과 의자, 돌과 나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거울 속의 물고기〉는 '마음이 본체인 식(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기 위해 '마음'을 '꿈'에 빗대 설명한다. 꿈속에서 볼 법한 모호하고 무질서한 형상들을 통해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날며, 때로는 기이한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알게 된다. 저자는 우리가 '깨어 있다고 믿는 현실' 역시 꿈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언젠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지금의 경험 또한 마음의 산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유식에서 말하는 '가설(假設)'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저자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임시로 정해 놓은 가짜'일 뿐이라고 말한다. '장미'라는 말이 어떤 식물을 가리키는 동시에, 치명적인 매혹을 가진 여인을 지칭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언어는 언제나 가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알면 그 실체까지 알았다고 착각한다. 유식은 바로 이 언어적 집착을 깨뜨리며, 세계를 보는 시야를 한층 자유롭게 확장한다. 저자는 거울이나 등잔불의 비유를 통해 "자기 마음이 지각한 것이 반드시 세계의 진짜 모습은 아니다"라는 유식의 통찰을 전한다.

책은 2023년부터 2년간 '법보신문'에 연재한 에세이를 가려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유식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로 〈인왕경소〉, 〈해심밀경소〉(1~8권)를 역주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수진 스님의 '십지품' 해설



청량국사화엄경소초 54
청량징관 찬술
관허수진 현토역주
운주사 / 2만5000원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부산 해인정사)이 2020년부터 100권을 목표로 역주 중인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제54~63권이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6차분 10권은 '십지품'을 담고 있다. '십지품'은 보살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품이다. 수진 스님은 "직역으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번역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완역 출판으로 청량 국사에 대한 더욱 깊고 넓은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0년 출가 수행자의 발자취



후포 가는 길
로담 정안 스님 시집
백조
1만2000원

"이 세상 / 내가 하는 일에 / 출가가 최고 행인 줄 알았는데 // 모두가 하는 일 가운데 / 가장 편한 것이었네." -시 '삶' 전문

로담 정안 스님이 10년 만에 펴낸 시집이다. "모든 말이 시어(詩語) 아님이 없고 모든 시어가 노래 아님이 없다"고 말하는 스님은 126편의 시를 통해 출가 수행자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답지 못한" 우리 사회를 경책한다. 정안 스님은 송광사로 출가해 해인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호법부장·문화부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등 종단 안팎의 소임을 두루 거쳤다.

일상 속 새들의 소소한 하루



의외로 사랑스러운 새의 일상
piro piro piccolo 지음
이혜정 옮김 / 수류책방
1만6800원

참새, 비둘기, 까마귀, 제비, 찌르레기….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새들의 소소한 하루를 귀엽고 유쾌한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만화책이다.

'참새들의 샤워 타임', '더위를 타는 까마귀', '무신경한 멧비둘기', '초보 휘파람새의 도전'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새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숨겨진 독특한 습성과 성격이 드러나고, 평범한 풍경 속에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일본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가 때로 유쾌하고 때로는 엉뚱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일화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화림산책 花林散策

스님이 한시漢詩로 들려주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
- 한시 408수

묵암默庵 지선志禪



스님은 근세의 선장禪丈이신 경봉정석鏡峰靖錫, 1892-1982선사의 법제자인 벽안碧眼,1901-1988화상의 문인이다. 종범스님이 경봉 - 벽안 - 묵암으로 법맥이 이어졌다고 대중에게 선언한 바 있다. 묵암스님은 평생을 수선修禪에 거처하고 때로 포교布敎에 힘을 기울인 선자禪者이다. 그런데 방선放禪의 여가에 드문드문 한시漢詩를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은 한시가 사백여 편이 된다. 스님은 한시집의 내용을 스스로 '소소한 삶의 이야기'라 평했다. '가랑비는 청산을 지나고'에 소박素朴이 피어나고,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함'에 해행보살解行菩薩의 기운이 보이며, '서툰 듯 읊는 벗들과의 만남'에는 세속의 정情 속에 청정각명淸淨覺明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노치허 선생의 해설 중에서

글. 묵암 강대인
펴낸곳.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610쪽 | 27,000원

BBS-TV에서 만난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을
책으로 만나게 됩니다.
禪과 명상이 총망라된 선명상의 표준교과서,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입니다.

월호스님의 게송 명상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글. 월호 | 펴낸곳.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240쪽 | 18,000원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125번길 14-3 올리브센터 2층 Tel. 051-255-0263 / Fax. 051-255-0953 / 전자우편. puremind-ms@hanmail.net

도안사-법문사, 한중 불교교류 새 이정표

9월 21일 기념법회 · 탑 제막식
법문사 방장 등 150여 명 동참
2005년 불지사리 韓이운 기념
순례단과 우호 증진 교류 나눠
혜자 스님 "신심 뿌리 확인 법석"



서울 도안사 108산사성지순례단은 중국 서안 법문사에서 '불지사리 한국 이운 친견법회 및 20주년 기념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법문사 합시사리탑에서 기념촬영 중인 순례단.

중국 시안=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한·중불교 교류의 이정표가 될 탑이 서울 도안사의 원력으로 중국에 세워졌다.

서울 도안사 108산사 성지순례단(단장 선묵 혜자 스님, 도안사 회주)은 9월 21일 중국 서안 법문사에서 '불지사리 한국 이운 친견법회 20주년 기념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과 법문사 방장 관엄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함께했다.

韓도안사와 中법문사 20년 교류

중국 법문사에서는 1987년 불지사리(지골사리, 부처님 손가락 사리)가 발굴됐으며, 2005년 한국에서 첫 해외 친견법회를 열었다.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선묵 혜자 스님은 불지사리를 한국으로 모셔 와 조계사 등지에서 친견법회를 봉행하면서 법문사와 도선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었다.

2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지난 4월 3~6일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도안사 주최 '부처님 불지사리 친견법회 20주년 기념전'을 개최했으며 이에 방장 관엄 스님을 비롯한 법문사 대표단이 내한한 바 있다. 이번 순례단의 법문사 방문도 20년간 이어 온 친선우호의 일환이었다.

선묵 혜자 스님은 기념법회 축사에서 "이번 제막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의 도리를 증명하는 자리"라며 "20년 전 불지사리를 한국에 모셔 친견 법회를 열었던 감회가 다시금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 법회가 양국 불교의 황금 유대와 성지순례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회에 이어 기념탑 제막식이 진행되며 한중불교 발전과 한중 우호를 바라는 자리가 펼쳐졌다. 기념탑은 도안사 석탑을 본떠 만든 형제탑으로, 법문사 대표단의 올해 도안사 방문 당시 관엄 스님의 한국식 석탑 조성 의견에 따라 형태가 결정됐다.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법문사 방장 관엄 스님에게 기념사진첩을 전달하고 있다.

관엄 스님은 "20년 전 도선사와 법문사는 불지사리를 인연으로 형제결연을 맺었다"며 "세월은 흘렀으나 불자의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변함없는 우의를 강조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법문사 방장 관엄 대화상'이 새겨진 자개 명패를 선물했으며, 관엄 스님은 법문사 전통이 담긴 청자와 공양보살상 자수액자를 전하는 등 우애를 나눴다.

중국 최고의 성보 통한 양국 교류

순례단의 방문은 법문사 측의 세심한 배려 속에 진행됐다. 법문사 대웅보전에서 진행된 육법공양 후 순례단은 진신보탑 지하궁을 참배했다. 법문사는 복원공사로 인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지하궁을 개방했다. 법문사 지하궁은 1981년 13층 진신보탑 붕괴 후 복원과정에서 발견된 지하 비밀공간으로, 여기서 발견된 지골사리는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불지사리 봉양이 관례가 될 정도로 중국 최고 성보로 꼽힌다.

불자들은 합시사리탑에서 육법공양을 올렸다. 합시사리탑 육법공양에서 순례단원들의 얼굴에는 20년 전 한국 땅을 찾았던 부처님의 가피를 되새기는 감격과 환희의 빛이 가득했다.

사리 참배에 이어 법문사 성보박물관에서 사리장엄구 등 출토 유물을 보는 자리에서 순례단원들은 오체투지로 예를 올렸고, 일부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한 기도를 올렸다.

법회에 참석한 한 불자는 "20년 전 서울에서 느꼈던 전율을 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직접 법문사를 찾아 스님들의 인도로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공양까지 올리니 감회가 새롭다"며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간절히 발원했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법문사 경내에 제막한 불지사리 한국친견 20주년 기념 석탑.

선묵 혜자 스님은 "불지사리를 친견한 인연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는 다리"라며 "오늘 맺은 이 인연이 한국과 중국 불교 모두의 수행과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도안사 108산사 순례단은 9월 18일 중국 밀교 총본산인 대흥선사, 9월 19일 법상종 총본산 흥교사 등을 참배했다.

도안사 108산사 순례단 순례 동참기

옛 구법승 걸었던 구법로드 직접 순례하니 환희심 절로

도안사 108산사순례단의 중국 성지순례 여정은 불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던 구법승들의 여정과 닮아 있었다.

9월 18일 시안에 도착한 순례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자은사(大慈恩寺). 17년간의 목숨을 건 여정 끝에 657부의 경전을 가져와 중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현장(玄奘) 법사의 숨결이 깃든 곳이다. 순례단은 7층으로 우뚝 솟은 대안탑(大雁塔)을 탑돌이하며, 오직 진리만을 위해 사막과 설산을 넘었던 한 인간의 위대한 의지와 구법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이어 도안사 108산사순례단은 시안 대흥선사를 방문했다. 순례단은 지객 스님의 안내로 대웅보전을 참배하고 이어 대흥선사 방장 관욱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대흥선사는 중국불교계에서 밀교 중심 사찰로 당나라 시대에는 장안(長安)의 4대 사찰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다.

9월 19일 방문한 초당사(草堂寺)에서는 불교 경전 번역의 역사를 바꾼 구마라집(鳩摩羅什) 스님의 사리를 친견했다. 스님의 유려하고 정확한 번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금강경〉, 〈법화경〉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순례단은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팔보옥탑(八寶玉塔) 앞에서 예를 올리며, 시대를 넘어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 준 은덕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선묵 혜자 스님의 안심법문과 〈반야심경〉 독경 후 정토조사인 선도대사 사리탑을 돌았다.

순례는 때로는 장엄한 자연 속에서, 때로는 화려한 문화 속에서 계속됐다. 셋째 날, '서악(西嶽)'이라 불리는 화산(華山)의 험준한 산세는 순례단을 압도했다.

순례의 정점은 넷째 날인 9월 21일, 법문사에서 봉행된 기념행사들이었다. 이날 일정은 한중 불교교류사에 길이 남을 '불지사리 한국 이운 20주년 기념탑' 제막식으로 시작됐다.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순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불교계의 변치 않는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탑이 모습을 드러내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례단원들의 얼굴에는 20년 전 한국 땅을 찾았던 부처님의 가피를 되새기는 감격과 환희의 빛이 가득했다.

금춘희 보살(60세, 경기 광명시)은 "108산사순례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수행의 길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며 "이번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시안=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중국 법문사에 세워진 한중 우호형제사찰 맹약 비문을 선묵 혜자 스님이 둘러보고 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50주년 기념

불교 현대화를 위한 불교 학술 문화의 마중물이 되다!

대원불교학술총서 · 대원불교문화총서 시리즈로 발간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서
윤회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408쪽, 2024년



불교의 핵심 가치인 존엄, 자유, 평등, 법치주의가 곧 자유민주주의 이념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구상진 지음, 600쪽, 2025년



수행 경험자와 초보자 모두에게 최고의 안내서
통찰의 체험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 248쪽, 2025년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해명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문일수 지음, 360쪽, 2023년

○ 대원불교학술총서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비구니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문일수 지음
달라이 라마의 정치 철학,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불교 윤리 1 · 2,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안환기 지음
불교경제학, 클레어 브라운 지음, 박찬국 옮김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존 메이컴 엮음, 정환희 옮김
까르마,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
불교와 과학, 앨런 월리스 편집, 박재용 옮김
선과 유식, 다케무라 마키오 지음, 권서용 옮김
무에 대한 탐구,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옮김
불교윤리학 입문, 데미언 키온 지음, 조은수 옮김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안성두 지음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브룩 지포린 지음, 정천구 옮김
불교철학 길라잡이, 이규완 지음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구상진 지음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피터 싱어 · 스저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
통찰의 체험,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오용석 지음
세계 불교의 여성들, 카르마 렉세 쏘모, 조승미 옮김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이석주 지음
한국 현대불교사, 김경집 지음
만해 한용운 미학의 철학, 백원기 지음
불교 이후,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 대원불교문화총서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이한영 지음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 방경일 지음
몽이의 깨달음, 용정운 지음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권오민 지음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 지음
만화로 보는 염불명상 길라잡이, 방경일 지음
아이찾는 아이, 김태라 지음
공심이의 비밀 일기, 김임천 지음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한상희 지음
사랑은 아프다, 로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

도서 출판 보급처 :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3672-7181
다음카페 :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만나고 싶었습니다

진미령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

불심으로 빚어낸 노래, 전법의 길을 걷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 가요계에서 '진미령'이라는 이름은 세월을 관통해 온 멜로디와 함께 기억된다. 1979년에 데뷔해 1980년대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감미로운 목소리, 무대 위의 세련된 자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한다. 그러나 '진미령'이라는 이름을 불교계에서 부를 때, 그 울림은 조금 다르다. 인기 가수가 아니라 신심 두터운 불자로서 전법과 나눔의 길에 앞장서 온 인연 때문이다.

전법단장으로서의 발걸음

가수 진미령 씨는 1990년 대한불자가수회 창립과 함께 회원으로 활동하며 불자 연예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불교계 다양한 행사에는 언제든지 기꺼이 나섰다.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사찰 법회나 불자 행사라면 시간을 내 함께하며 신행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나눴다. 2022년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출범할 때부터 핵심 멤버로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원으로서 종단 행사 참여와 승보공양, 사찰봉사 활동, 자선바자회, 효 잔치, 전국사찰노래자랑 등 문화포교 및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지난해 1월 조계종에 포교진흥기금 1000만원을 전달한 진미령 씨는 "연예인전법단 단원으로서 노래와 행동을 통해 부처님 법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겠다는 소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연예인 불자들의 구심점이 돼 온 진 씨는 그 공을 인정받아 올해 7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전법단에서 재가자가 단장 맡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 씨는 "단장이란 직책은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불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불교를 알리는 일"이라며 "전법은 스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재가자도 함께 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종교적 소속감을 넘어 삶을 관통하는 실천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활동은 전법에만 그치지 않는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의 홍보대사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장기기증과 생명 존중 운동은 불교계가 앞장서 온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진미령 씨는 대중에게 친숙한 목소리와 얼굴을 지닌 이로서, 생명나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두터운 신심으로 전법 · 나눔에 앞장
불자가수회 창립 멤버로 솔선수범
첫 재가 연예인전법지원단장 임명

사경으로 불심 다지고 나눔 실천
'불자는 남 돕는 사람' 부친 가르침
"노래로 불법 전 세계 전하고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불심

불자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삶의 뿌리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 김동석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책임감은 가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열정은 가정을 더욱 단단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불자로 살며 지역 사찰의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발걸음하곤 했다. 시주와 봉사는 물론, 사찰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먼저 나서 힘을 보탰다. 그의 법명인 대자행(大慈行)도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이 내려줬다.

"아버지는 '불자는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아버지가 보여 준 삶의 본보기는 지금 제가 불자로서 전법과 나눔의 길에 서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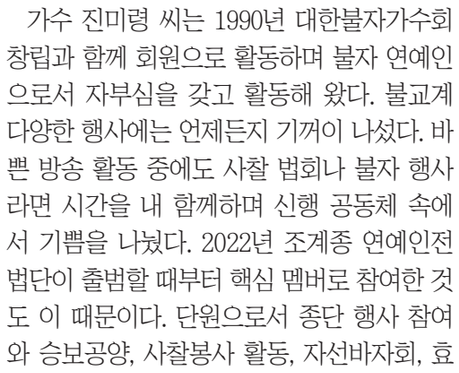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신심, 그리고 자신이 몸소 실천하며 다져 온 불심은 본업에서 빛을 발한다. 진 씨의 무대는 단순히 대중가요의 장르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도, 법석 위에서도 노래한다. 때로는 신심 깊은 불자들을 위한 찬불가를, 때로는 불교계 행사장에서 희망을 노래한다. 노래는 곧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곧 전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법화경〉 사경…안식 찾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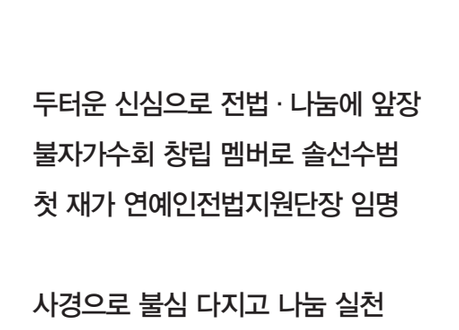
무대와 봉사 활동 못지않게 그의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행이다. 진미령 씨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법화경 약찬게〉 사경을 이어가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 펜을 잡고 경전을 옮겨 적는 시간을 그는 "마음의 안식을 찾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잡념이 사라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고스란히 가슴에 새겨진다"면서 "사경 수행은 일상과 무대를 더욱 맑고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힘"고 말했다.

진미령 씨는 "앞으로 걸어갈 길이 분명하다"고 했다. 연예인전법단 전법단장으로서 불교계 행사를 이끌고, 생명나눔 운동을 알리며, 일상에서 사경 수행으로 불심을 다져가는 모습. 바로 노래하는 불자로서, 나누는 불자로서, 그리고 부처님 법의 기쁨을 전하는 불자로서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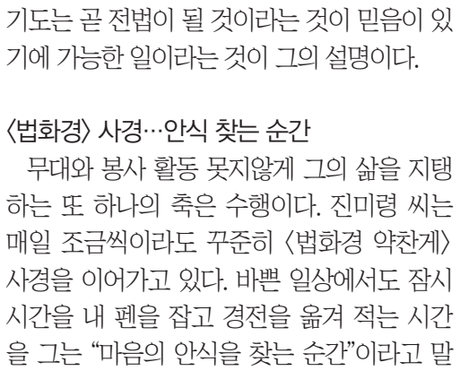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자리에서도 불자로서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의 삶은 아버지가 일찍이 가르쳐 주신 것, 바로 '남을 돕는 것이 곧 불자의 길'이라는 단순하면서 가장 깊은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바쁜 일상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 꾸준히 〈법화경 약찬게〉 사경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 임명장을 받았다.



2023년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걷기대회 등에 참여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2022년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출범과 함께 핵심 멤버로 참여한 가수 진미령 씨는 2025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그는 노래하는 불자로서, 나누는 불자로서, 그리고 부처님 법의 기쁨을 전하는 불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7 중생의 마음이란



▶한줄 요약
부처님의 마음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없는 무분별의 중도심이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락의 마음도 초월하고 생사의 마음도 초월한 상태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苦樂 없는 무분별한 중도심이 '부처님 마음'

[오늘의 명상]
새싹 돋고 잎 피고 열매 맺고 씨앗 되는
나무 한 그루의 일생을 꼭 알고 싶은가.
세월 속 풍상(風霜)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라진다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화려하게 핀 꽃은 아름다웠던 만큼 추하게 사라지고, 이름 모를 야생화는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지만 추한 모습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 역시 화려하게 산 사람은 영욕(榮辱)의 파도가 교차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온 사람은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음을 비워 도를 이룬 사람은 사라질 때도 마음 편하게 사라지지만,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사라질 때도 회한(悔恨)이 가득 찬 상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중생의 마음이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과 상관없이 고락(苦樂)의 두 마음이 교차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편안한 중도(中道)의 마음에 가깝게 되지만,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욕(榮辱)의 마음이 크게 격동하게 됩니다.

마음을 1에서 100으로 나누자면, 1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도 1이요 괴로움도 1입니다. 10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이 10이요 괴로움도 10이고, 100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이 100이면 괴로움도 100입니다.

고로 부처님의 마음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없는 무분별의 중도심이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락의 마음도 초월하고 생사의 마음도 초월한 상태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인과(因果)란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원인이 되어 괴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괴로운 마음이 원인이 되어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을 내어 원하는 바를 이뤄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50이라면, 언젠가는 인과적 과보에 의해 실패에 따른 50의 괴로움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남이 10이라면 사라짐 또한 10이 되고, 뜨는 해가 100이라면 지는 해도 100이 되며, 산을 올라 정상을 밟았다면 내려오는 것 또한 올라간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는 이유는 단 1의 마음도 갖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야 인과를 벗어나고 업(業)을 멸하여 고락도 생사도 사라진 중도의 마음 즉,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중도의 마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출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비우고자 하나 몸에 밴 업습(業習, 습관과 버릇) 때문에 중도심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분별(分別)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것과 심(心)적인 모든 것을 버린 비운 상태가 되거나, 복(福)이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보시(布施)와 정진(精進), 참선과 기도 수행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명상]
염일방일(拈一放一)이라.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놓아야 하느니
하나를 쥐고 또 다른 하나를 쥐려 한다면
쥐었던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욕심은 본능입니다. 욕심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오욕락(五欲樂)이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구비가 안 될 때는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욕을 충족하는 것은 곧 즐거움입니다.

다섯 가지 욕심이란 △식욕(食慾) △수면욕(睡眠慾) △성욕(性慾) △재물욕(財物慾) △명예욕(名譽慾)을 가리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욕심입니다. 우선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는 욕심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3일 정도 자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종족 번식과 쾌락을 위한 성욕이며 재물욕은 미리 대비하여 축적을 해 놓으려는 욕심입니다. 추위가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먹고 자는 문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예욕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우쭐한 마음입니다. 또,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다섯 가지 욕심은 사람이 가지는 본능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런 것입니다.

"중생심은 매 순간마다 고락이 교차
욕심이 많을수록 영욕의 마음 커져
1의 마음 가지면 고락도 전부 '1'
고락 · 생사 초월 부처님 마음은 '0'
보시와 정진으로 업과 습 끊어내야"

그런데 이와 같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먹고 자야 살 수 있는 오욕락도 결국 고락사(苦樂捨, 괴롭고 즐겁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라고 하는 삼수(三受)작용의 감정 문제로 귀결됩니다.

배고프면 괴롭고, 배부르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괴롭고 즐거운 업의 습기가 먼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배부르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의 습기가 먼저 있기 때문에 배고픈 현상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괴롭고 즐거운 마음의 분별심을 먼저 없애야 배고프고 배부른 현상도 따라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분별심을 없애지 않고서는 영원히 배고프고 배부른 현상이 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수면욕과 재산욕, 성욕, 명예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욕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마음의 업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마음의 분별심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분별심을 제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현상의 실체가 없으며, 문제의 근원은 현상을 보는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행 밖에 답이 없습니다. 선명상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좋고 싫음, 옳고 그름과 같은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애초 성립되지 않습니다.

들이쉰 숨을 뱉지 않고 계속 들이쉴 수는 없듯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듯이, 지나친 욕심은 모두 다 잃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일상의 생활에서도 늘 유념하도록 하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강진 월출산 무위사 수륙대재(水陸大齋)

일시: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9시 | 무위사 대적광전

세종대왕의 명으로 나라의 통합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던 조선 최고의
국가 의례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과거를 위로하고
현재를 축원하며 미래의 평화를 기원하는 숭고한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위사 수륙대재 전야제
창작국악뮤지컬 〈세종의 꿈〉
일시: 2025. 10. 17.(금) 오후 6시 30분
장소: 강진 무위사 대적광전 특설무대

조상의 평안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무위사
| 후원 | 전라남도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⑱ 오직 마음[唯識]뿐인가? : 이생진의 '술에 취한 바다'



▶한줄 요약
시인은 이 시에서 유식(唯識)의 관점으로 성산포를 바라보며, 바다와의 교감을 통해 바다와 둘이 아닌 [不二] 하나가 된다.

바다와의 교감, 경계를 넘다

미술이나 문학, 음악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유독 술을 좋아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알코올이 창작 활동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작가들의 낭만적 감성을 끌어내는 데 이만한 것도 없다. 술을 빌려 글을 쓰고 그림 또한 '주력(酒力)'으로 그린다는 이야기도 농담처럼 자주 오르내린다. 일반인이 술 마시고 떠들면 주정(酒酊)이 되지만, 술에 취한 시인의 말은 '아포리즘(aphorism)', 즉 잠언이 된다. 그래서인지 술과 관련된 시나 명언도 적지 않다.

어느 주점 벽에서 발견한 글이다.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 봐라 / 내가 옷 사 입나 / 술 사 먹지." '술타령'이란 제목의 작품인데, 주당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 시다. 그 추운 날씨에도 옷 대신 술을 택한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잊게 한다. 어쩌면 술과 예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모리야 센얀이라는 일본의 선승은 유언으로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한다.

"내가 죽으면 / 술통 밑에 묻어 줘. / 운이 좋으면 / 밑동이 샐지도 몰라."

류시화 작가가 엮은 잠언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에 나오는 '술통'이란 작품이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큰소리로 웃었다. 그가 얼마나 술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이런 임종게를 남길 만큼 해학과 기개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술을 불교에서는 경계한다. 불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五戒] 가운데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는 대목이 있을 정도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네 가지 계율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살생과 도둑질, 사음, 거짓말을 금하는 계율은 성계(性戒)라고 해서 이를 어기면 교단에서 추방됐다. 이에 비해 불음주계는 다른 계율을 제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술을 마시면 깨어 있는 정신을 유지할 수 없어서 네 가지 계율을 어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를 막기[遮]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불음주계다. 이를 가리켜 '차계(遮戒)'라고 부르는 이유다. 술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약간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괜찮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오늘 소개할 이생진 시인의 '술에 취한 바다'에도 제목처럼 술이 등장한다. 술을 통해 사람과 바다 사이의 벽을 허문 시인은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으로 유명하다. 1978년 초판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 받아 온 작품이다. 시인은 천여 곳이 넘는 섬을 찾아다니면서 시를 썼다고 한다. '섬 시인'이라 불릴 만큼 섬과 바다를 사랑한 이생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사연을 원고지에 담아냈다. 〈섬에 오는 이유〉, 〈섬마다 그리움이〉, 〈먼 섬에 가고 싶다〉, 〈그리운 섬 우도에 가면〉 등의 시집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술로 사람 · 바다 사이 벽 허문 시인
마음의 그림자로 바라봐 유식 닮아
대상과 주관 모두 깨져 하나 된 경지

이생진은 196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대표작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리운 바다 성산포〉다. 여기에도 술과 관련된 시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섬 묘지'라는 시의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한다.

"살아서 무더웠던 사람 / 죽어서 시원하라고 / 산 꼭대기에 묻었다 // 살아서 술 좋아하던 사람 /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 섬 꼭대기에 묻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죽어서라도 시원하라고 산의 꼭대기에 묻은 것처럼, 술 좋아하는 이는 섬의 꼭대기에 묻으라는 것이다. 흔들리는 파도를 보면서 술에 취한 느낌을 만끽하라는 뜻인 것 같다.

'술에 취한 바다' 역시 〈그리운 바다 성산포〉에 실린 작품이다. 이 시집은 특히 시 낭송으로 많이 소개됐는데, '술에 취한 바다'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는다. "술은 내가 마시는데 /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라는 구절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시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대목이다. 특히 주당들에겐 술을 부르는 시이기도 하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성산포에서는 / 남자가 여자보다 / 여자가 남자보다 / 바다에 가깝다 / 나는 내 말만 하고 / 바다는 제 말만 하며 / 술은 내가 마시는데 /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 성산포에서는 / 바다가 술에 / 더 약하다."

술은 내가 마시는데 바다가 취한다고?

이 시를 읽으면서 성산포에 처음 갔을 때가 떠올랐다. 제주도의 이국적인 풍경도 좋았지만, 성산포에서 바라본 바다는 압도적이었다. 그런 멋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그 당시 소박한 한낮의 꿈을 꾸기도 했다. 이곳 바닷가에서 슈퍼마켓을 하면 매일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참 좋겠다고. 그만큼 마음에 들었던 바다였다.

시인 또한 이 바다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다. 성산포란 주제로 수많은 글을 쓰고 시집까지 냈으니 말이다. 아마 이곳에서 술도 제법 마시지 않았을까? 술 한 잔 마시고 바다를 바라보면, 평소보다 파도의 흔들림이 심하게 다가온다. 마치 술에 취한 내가 흔들리는 느낌이다. 순간 저 깊은 내면에서 충만한 감성이 흘러나온다. 술은 내가 마셨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한다고. 시인이 아니면 쉽게 나올 수 없는 불이(不二)의 언어다. 술에 취한 시인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한 멋진 감성이다. 그 메타포의 절정에서 시인은 결론을 맺는다. 바다가 자기보다 술에 더 약하다고. 이쯤 되면 한 잔 더 마셔도 된다고 자위하지 않았을까?

이 시는 불교의 심리학이라 일컫는 '유식(唯識)'을 닮아 있다. 유식이란 오직[唯] 마음[識]이라는 자신만의 거울을 통해 대상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유식은 그런 우리를 향해 착각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그림자를 통해 바라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 위에서 소변보는 강아지를 보았다고 해 보자. 우리는 그 벤치를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쉽게 앉지 못한다. 마음속에 강아지가 소변보는 장면이 입력되어 더럽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무의식 깊은 곳에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벤치를 아무리 예쁘게 가꿔도 그에게는 더러운 의자로 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무경(唯識無境)'이다. 오직[唯] 마음[識]에 비친 더럽다는 편견만 있을 뿐, 벤치라는 대상[境] 자체는 의미가 없다[無]는 뜻이다. 적어도 마음속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내용과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시인 역시 유식의 시선으로 성산포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바다가 그저 아름답고 좋았는데, 한잔 술에 취해 바라본 바다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출렁이는 파도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때는 오직[唯] 시인의 마음[識]에 비친 술 취한 바다만 있을 뿐,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 갈매기 나는 바다[境]는 없었던[無] 것이다. 그리고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고 한 것을 보면 시인은 아직 만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술에 취한 자신보다 파도가 더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작품은 술에 취해 바다를 멋지게 희롱하는 시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시는 술꾼의 말이 아니라, 감성 충만한 시인의 고급 언어다. 시인은 처음에 "나는 내 말만 하고 / 바다는 제 말만" 한다고 했다. 시인이라는 주체와 바다라는 대상 사이에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둘 다 자기 말만 한 것이다.

그런데 바다와 교감하면서 가로막혔던 벽이 깨지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시인의 말을 바다가 알아듣고 바다의 마음을 시인이 이해하게 됐다. 그야말로 시인과 바다가 둘이 아닌[不二] 하나가 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바로 그것이다. 대상과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술을 마셔도 바다가 취한다. 바다가 아프면 시인의 마음도 아프고 바다가 기쁘면 시인 또한 기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내가 모두 깨져야 한다. 이를 가리켜 유식에서는 '경식구민(境識俱泯)'이라 한다. 대상[境]과 주관[識]이 모두[俱] 깨져[泯] 하나 되는 멋진 경지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흉터라고 하는데, 남편 눈에는 예쁜 보조개로 보인 것이다.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기 마련이다. 나태주 시인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았던가. 성산포 앞바다도 그렇다. 이생진은 술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산포를 사랑한 시인이다.

시인의 말처럼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 그러니 그곳에 가거들랑, 술에 취해 바다를 함부로 대하지 말자. 취객이 버린 깨진 소주병에 바다도 다친다. 바다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에 성산포도 앓고 있다. 그 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성산포와 나는 한 몸[同體]이니까. 그곳에 가고 싶다.

지난 9월 19일 세상을 떠난 이생진 시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제13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31일(금)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 되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및 온라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
• 문 의 : 사무직원 윤선웅 yoon1910@nate.com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5년 12월 26일(금)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4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을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9호 | 15 | 전면광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한세상뿐이지만, 불경은 무수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도를 얻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만 수익
- 시세 70억 매가 45억, 주차가 매수완료시 수익1000~1300만 가능
- 위치 : 충남사찰 봉안당
- 면적 : 2000평, 사찰
- 법당 : 30평, 봉안 20000분
- 현재운영 중, 버스 진입 가
- 매가 : 25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서울 포교당

- 서울 은평구 3층건물 3층 (지하철역에서 300m이내 대로변 위치)
- 임대평수 24평
- 보증금 1000/월세 80만원
- 시설 인수 2500만원 필요, 냉난방 완료
- 인수 후 바로 사찰 운영 가능

010-3776-379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평수 600평(법당 60평. 요사채 7방)
- 커피숍 운영 공간 있음
- 금액 : 상담 후 결정

제주도 한라산 아래 위치한 사찰에서 한달기도도량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사찰입니다.

064-752-0108
010-2300-19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서 사천시 경계
- 대지 총 133평(텃밭 20평 포함)
- 건물 법당 30평(인법당 및 스님 주거공간 포함)
- 공양채 20평(태양광 3K 설치 완료)
- 법당시설 완벽함(최상급 인법당 시설)
- 법사님 비구니 스님 추천(토굴로 적합)
- 매매가 3억 6500만원 (은행 융자 1억 5500만원 포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5003-4678

별 장 토 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분천리 비룡산 700고지
- 임야 : 2631평/대지 : 55평 (전체토지 준보전산지)
- 작은계곡 접함
- 컨테이너 1동포함
- 금액 : 5천만원

010-4124-7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장소 : 경북 포항
- 대지 : 1500평
- 건평 : 100평(법당, 공양간, 스님방, 종무소, 삼존불)
- 6년차 신축건축물
- 매매금액 : 12억원

010-2857-2811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읍
- 평 수 : 530평
- 법 당 : 13평 목조
- 요사채 : 70평
- 가 액 : 2억 2천

010-9940-00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검전위길 37-25
- 대웅전 20평 삼존불 신중탱화
- 주차 10대 가능 주차장
- 요사채 방1 부엌 화장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살림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

010-9017-487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모라동

백양산 천연굴법당

- 요사채 법당 15평 별도 존재
- 몽땅 7000만원 (조절 불가)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현재 스님 기도 중(신도 다수)

스님 010-3033-7677(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 산 3900평 대지258평
- 건물3동(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 주차 가능, 경주시 15분 거리
- 가액 : 3억 5000만원 (집기일체, 절충가능)

010-4554-5984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동국대병원 10분(차)
- 대지 : 250여평, 법당 30평, 정남향.
- 특징 : 산속 청정수, 1년 내 마르지 않음 (가재); 서출 동녀수 형산강을 끼고 있어 연년 중 시원함. 도량 내 200년 된 소나무. 힘이 샘솟으며 사찰기운이 강함.
- 텃밭 : a.100평 식재중, b.300평 휴경중 (모두 국유지)
- 슈퍼 : 1km, 5km 내, 3개 • 매가 : 3억 8천

010-9388-02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시내
- 대지 : 800평
- 대웅전, 연못, 휴게소, 찜질방, 종각 산신각, 신비한 거북바위, 요사채 방7개, 리라이트찜질 가온기5대
- 가액 : 9억 / 전세 : 3억 5천

하실분 전화주세요 문자 먼저 주세요

010-5883-225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원

010-4835-1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괴산리
- 약 1000평 이상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 찰 안 내

존경받고, 불사에 큰 마음가지시는 스님께 도량을 올립니다.
경상도 내 유명사찰이고, 신도님 약 30만명 (종단본부도량)
신라경순왕 시대창건(추정), 현재 불사 약1000억원 시행완료.
문화재 2점보유 전통사찰 곧 등재 됨, 대웅전 등 건물12동
총무 · 재무 보살님과 직원은 스님이 임명가능 하십니다.
추가 불사비용 일부 준비되는 스님만 상담드립니다.(신도회)

053-745-9999, 010-2512-7777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 보호 및 색채 보존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안전기준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제 FB25-07-0032호

國寶 明油·蘇子油

명유·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보존제

발수코팅·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사용처 : 문화재(단청마감재), 색채 보존제, 사찰, 한옥, 공예품, 민속품, 목재 보호 및 코팅이 필요한 모든곳, 경첩, 놋쇠 등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 010-3747-2111
TEL | 031-451-6232 FAX | 031-451-6238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1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주와의 이외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49호 | 16 | 전면광고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자경문》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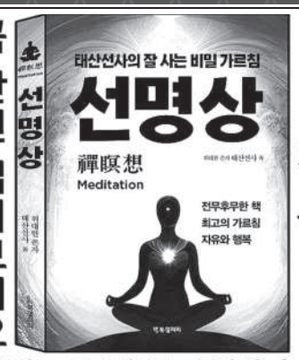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4804-2309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십구재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창작무. 태평소. 향피리. 등등
대~소 행사 저렴하게 보시합니다.
충남북~서울~경기 일원
소중한 도량불사 중에
큰 공덕이 될것입니다.

봉헌사 주지 성광
041-338-159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49재 천도재 초하루 기도

부산 경남지역
법주사 수현 스님

010-6667-4843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스님구함
행자, 처사님, 공양주 보살구함

(태고종)부산 만덕동
만덕사

010-3840-4355

희귀병 상담

-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 무엇인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시는 분
- 매일같이 몸이 아프신 분
-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

합천군 가야면 죽전길 132-2 법정사

010-7321-0404

전국 어디든 사찰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해드립니다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드립니다

010-9260-1672

수연스님의 AI 명품운명 컨텀

지혜와 과학이 만나는 운명의 길

전통 명리학과 최첨단 AI문서가 하나되어 수연 스님의 깊은 통찰로 사주·궁합·사업·시험·운세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 성공을 설계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맞춤 상담

예약전화 010-2239-0300
SUYEON SUNIM`S
AI PRESTIGE FATE QUANUTUM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할인 이벤트 행사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⑲ '뿌리 깊은 나무'(2011)

훈민정음, 백성을 자유롭게 하다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 대왕님을 한 번 모셔야겠다. 요즘에야 신사임당께 1위를 내주셨지만, 한때는 가장 고액지폐의 모델을 하실 만큼 세종 대왕은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이다. 세종 대왕을 우리 역사 최고의 위인으로 꼽는 이유 중 하나는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다른 업적도 많이 있지만, 현대의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한글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사용되고 있으니 세종 대왕의 업적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 대왕이 직접 지으셨다는, '나랏말ᄊᆞ미 듕귁에 달아 문ᄌᆞ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다)'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을 외우고 있다면 자랑스러워도 해도 될 일이다. 10월의 한글날뿐만 아니라 5월의 스승의 날까지 세종 대왕의 생신에 맞출 만큼 우리가 세종 대왕을 생각하는 마음은 극진하다.

이런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룬 드라마가 바로 SBS의 '뿌리 깊은 나무'이다. 드라마는 왕궁 호위 무관 강채윤(배우 장혁)이 집현전 학사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 훈민정음 반포 직전 7일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다. 살해된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 대왕(배우 한석규)이 주도해 비밀리에 조선의 글자를 만들고 있던 천지계의 계원들이었다. 드라마 속 가상의 조직인 천지계에는 이들 외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소이(배우 신세경)를 비롯한 몇몇 궁녀와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등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들, 그리고 세종 대왕의 아들인 광평 대군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세종 대왕의 움직임에 맞선 또 하나의 가상의 비밀 조직 밀본(密本). 이들은 조선의 숨겨진[密] 뿌리[本]는 재상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왕권(王權)과 대립하는 신권(臣權)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드라마 제목 '뿌리 깊은 나무'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2장의 첫 구절 '불휘 기픈 남ᄀᆞᆫ'에서 따왔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이 글자가 실제로 우리 말을 잘 표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훈민정음 반포 전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가사이다. 용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 왕조의 기틀이 되는 인물들을 노래하면서 조선 왕조를 찬탄하는 노래로 이 가사에 맞춰 만들어진 궁중무용과 음악이 바로 '봉래의(鳳來儀)'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룬 드라마
불교 영향 분명, 일부선 스님 창제 주장
훈민정음의 실질적 주인 백성임을 선언

왕이 깊이 관여해서 만든 글자이니 훈민정음으로 왕조를 찬탄하는 노래를 처음 짓는 일이 일견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용비어천가〉 다음에 지은 글이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를 자세히 해야 할 곳은 자세하게, 간략히 넘어갈 곳은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뜻이다. 또 〈월인천강지곡〉은 하늘의 달빛이 천 개의 강에 비친다는, 유명한 불교 비유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 〈용비어천가〉를 제외하면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글이 모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조선의 정책은 숭유억불이라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드라마에서 살해당한 집현전 학사의 집을 찾아간 채윤은 그 학사가 〈대비바사론〉이라는 범어로 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해 듣는다. 〈대비바사론〉은 경전이 아니고 논서인데다 이미 한역이 돼 있는 것이므로 범어로 돼 있다는 말은 잘못됐지만, 드라마에서도 불교 문헌을 언급할 만큼 훈민정음 창제에 불교의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의 주체가 집현전 학자가 아니라 스님이라고까지 주장한다.

'나랏말ᄊᆞ미'로 시작해서 '뼌한킈 ᄒᆞ고져 ᄒᆞᆯᄯᆞ르미니라(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로 끝나는 훈민정음 서문이 108자이고, 당시 유학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굳이 한문으로 번역해 '국지어음(國之語音)'으로 시작해서 '편어일용의(便於日用矣)'로 끝나는 훈민정음 한문본 서문이 그 절반인 54자라는 사실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반포한 해가 1446년이고 조선이 세워진 해가 1392년이니 겨우 50년 남짓한 세월만에 새로운 글자가 등장했다. 고려를 망하게 한 원인이 불교라며 조선이 불교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는 여전히 불교였을 것이다. 50년이란 짧은 시간에 정신적인 면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불교를 품고 사는 이들이 바로 한글을 실제로 사용할 '어린 ᄇᆡᆨ셩(어리석은 백성)'이니 그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석보상절〉이고 〈월인천강지곡〉이었다. 세종 대왕님의 마음 씀씀이가 이런 데까지 미친다.

이처럼 훈민정음이 백성을 위한 글자임을 드라마는 끊임없이 강조한다. 일상의 욕이나 온갖 의성어까지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면서도 고작 28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나절만 배워도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임을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 준다. 특히 드라마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소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환자였다가 반포 무렵이 되어 말을 함으로써, 글자가 없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던 백성이 비로소 자유로운 세상을 맞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소이가 바로 훈민정음을 해설하는 '해례(解例)'라고 설정함으로써 훈민정음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백성임을 선언한다.

600여 년 전 한자를 몰라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렇게 새로 만든 글자로 불교 문헌의 언해본을 편찬했다. 세종 대왕 이후로도 국가기관인 간경도감(刊經都監)을 통해 다양한 경전이 우리말로 번역됐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이어 1963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40여 년에 걸친 역경 사업 끝에 '한글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인사 판전에 보관된 고려대장경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했다. 21세기에서야 비로소 불교 경전의 언해본이 완성된 셈이다.

불교는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이 된 요즘, 불교도 함께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불교가 퍼져나가는 데 우리의 한글대장경이 한몫을 했으면 싶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깨달음 위한 희생과 수행자 박해의 업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㊲ 십악륜 (4)의 주요 내용

〈지장십륜경〉 제4권의 무의행품 제3장, 제2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호에서는 '십악륜' 중 ④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육아상왕인연'이 삽입돼 있습니다.

④"선남자야, 파계악행의 비구가 이같이 법을 벗어난 중죄를 지었더라도, 나의 법에 의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행동의 위의가 성현들과 같으면, 국왕, 대신, 속인들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해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비법에 의함이겠느냐?

국왕, 대신, 속인 등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큰 죄를 얻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계율을 깨뜨린 악행비구에게도 그렇게 나무라거나 벌을 주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계율을 잘 지켜 진실하고 선한 행자에게야 어떻겠느냐?

선남자야, 어떤 비구가 여러 무거운 성죄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하기만 해도, 그를 계율을 깨뜨린 악행비구라 하지만, 화합한 스님네 속에서 얻은 율의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그가 배운 계율을 버렸더라도 깨끗한 법의 향기가 그를 따르고 있으므로, 율의가 없는 저 국왕 대신이나 속인들은 그를 경멸하거나 꾸짖거나 벌을 주지 못한다.

이런 비구는 비록 법의 그릇이 아니요, 거룩한 법을 잊어 청정한 대중을 더럽히며, 사문의 법다운 일을 파괴하기에 모든 스님에게 주는 물건까지도 받아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내가) 친히 가르친 화합한 스님네 속에서 얻은 율의를 버리지 않았기에, 일체의 속인들보다 나으니라. 성죄를 지은 자여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그 외의 사소한 차죄를 지은 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국왕, 대신, 속인들이 그를 경멸하거나 꾸짖거나 벌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육아상왕인연(六牙象王因緣)

"선남자야, 옛 가사국(인도 베나라스의 카시국)에 범수(梵授)라는 왕이 하루는 백정에게 명령했다. '설산 변두리에 '청련목'이라는 큰 코끼리 왕이 있는데, 그는 여섯 개의 어금니를 지니고 있다. 너희는 가서 그 이빨을 뽑아 오너라. 만일 가져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붉은 가사를 입고, 거짓으로 사문의 형상을 하고서 코끼리가 사는 설산의 주변에 이르렀다. 그때 한 어미 코끼리가 멀리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코끼리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대천(大天) 님, 어떤 사람들이 화살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죽는 것이 아닙니까?' 코끼리 왕은 이 말을 듣고 바라보니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왕은 어미 코끼리에게 말했다. '저들은 항하의 모래 수같이, 수많은 부처님 법의 당(幢) 모양을 차렸나니, 모든 악을 떠나 반드시 중생을 해치지 않으리.' 어미 코끼리는 게송으로 답했다. '저들이 비록 법복을 입은 줄은 알지만, 활과 화살을 가졌나니 저 나쁜 백정들은 악을 좋아하고 자비심이 없으리.'

코끼리 왕은 말했다. '가사를 한 모양만 봐도 자비심의 근본임을 알 수 있네. 저들은 부처님께 귀의한 자로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리라. 어머님은 의심을 품지 말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십시오. 법복을 입은 사람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고자 원합니다.'

그때, 백정들은 독화살로 코끼리 왕의 심장을 쏘아 맞혔다. 어미 코끼리는 그것을 보고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목메어 게송으로 말했다. '이 법의(法衣)를 입은 사람들,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랴? 그 위의는 고요하지만 독하고 악한 마음 품었구나. 저들을 빨리 짓밟아 목숨의 뿌리를 끊어 원한을 풀어 주시오. 대천의 몸을 쏘았기 때문이오.'

그때 코끼리 왕은 답했다. '차라리 이 목숨 버릴지언정 악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리. 그들이 간사한 마음을 품었더라도 부처님 제자 모양이거니, 지혜로운 사람은 목숨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모든 유정들을 제도하기 위해 언제나 보리 행을 익히네.'

그때 코끼리 왕은 백정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너의 이빨이 필요하다.' 코끼리 왕은 기뻐하며 곧 이빨을 뽑아 그들에게 주며 말했다. '나는 지금 흰 이빨을 너희에게 주지만, 아무런 분노나 원한, 아까워함도 없다. (이빨)을 보시한 이 복으로 장차 부처를 이루어 모든 중생의 번뇌 병 없애기를 원하노라.'

선남자야,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과거의 코끼리 왕은 비록 축생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를 구하기 위해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고, 가사 입은 사람을 존중했으며, 그가 원수일지라도 보복을 하지 않았다. … 그런데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재관 등은 실로 어리석으면서도 총명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세간을 속이며 후세의 괴로운 과보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나의 법에 출가한 이로서 법의 그릇이든 아니든 그들을 괴롭히고 꾸짖고 곤장으로 때리며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끊는다. 그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큰 범죄를 짓는 것으로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송림사 주지〉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⑲ 조선의 여성 명필이 쓴 기도: 인목 왕후의 불사



▶한줄 요약
인목 왕후는 고난의 시간을 경전 필사를 통해 이겨낸, 예술가와 수행자의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왕후의 붓, 사경 불사로 여물다

한국미술사에서 여성 참여와 흔적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분야는 단연코 불교미술이다. 각종 불교 조형물의 조성 기록에는 후원자로서 동참한 여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불심이 깊고 큰 재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 역시 불사의 대시주(大施主)로서 발원문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에서 인목 왕후 김씨(仁穆王后 金氏, 1584~1632)는 매우 특별하다. 첫째, 인목 왕후는 남성 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서예로 이름이 높았던 명필이었다. 둘째, 그녀는 사경(寫經)을 발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손수 서사(書寫)했던 수행자였다. 인목 왕후가 지닌 예술가이자 수행자로서의 복합적인 모습은 조선의 다른 왕실 여성 후원자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면모이다. 이는 그녀가 겪었던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고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애끊는 마음을 담아 쓴 한 글자 한 글자

인목 왕후는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의 정비인 의인 왕후 박씨(懿仁王后 朴氏)가 승하하자, 1602년(선조 35)에 간택을 거쳐 계비로 책봉됐다. 이듬해인 1603년(선조 36)에는 정명 공주(貞明公主, 1603~1685)를, 1606년(선조 39)에는 영창 대군 이의(永昌大君 李瑢, 1606~1614)를 낳았다. 영창 대군이 태어났을 당시는 후궁 태생인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위 1608~1623)이 왕세자에 책봉된 후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었다. 비록 인목 왕후는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지지했으나 영창 대군은 존재 그 자체로 혈통적 정통성이 취약했던 광해군에게 위협일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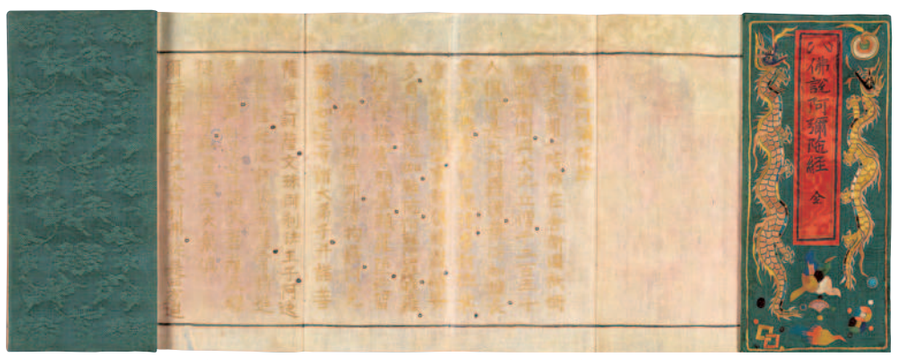
광해군은 1613년(광해 5)에 계축옥사(癸丑獄事)를 일으켜 영창 대군과 반대파 세력을 제거했다. 영창 대군은 역적의 수괴로 몰려 폐서인이 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됐으나, 1년 만인 1614년(광해 6)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인목 왕후의 부친 김제남(金悌男, 1562~1613)과 형제들도 사사(賜死) 당했고, 1618년(광해 10)에는 본인도 대비 자리에서 쫓겨나 서궁(西宮, 현재의 덕수궁)에 딸 정명 공주와 함께 유폐됐다. 부모는 형살을, 친정은 멸문을 당하고, 품안의 어린 자식을 빼앗긴 채 유폐 당한 인목 왕후를 지탱해 준 것은 불심이었다.

서궁에 유폐됐던 시기에 인목 왕후는 적어도 네 건의 경전을 손수 필사했다. 그중 1621년(광해 13)에 서사한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과 1622년(광해 14)의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이 남아 있다. 〈불설아미타경〉은 백지 위에 금자로 〈불설아미타경〉의 경문을 쓰고, 이어서 은자로 왕생정토신주(往生淨土神呪)와 발원문을 써 완성한 절첩본의 작은 사경이다. 발원문에 따르면, 〈불설아미타경〉은 '소성 정의 왕대비 김씨(照聖貞懿王大妃金氏)', 즉 인목 왕후가 천계원년(天啓元年, 1621) 신유(辛酉) 9월에 은으로 손수 경건하게 쓴 〈미타경(彌陀經)〉 3건 중 하나다.

그녀는 1604년(선조 37) 10월에 '소성(昭聖)'이란 존호를 받았는데, 발원문에는 '조성(照聖)'이라 적혀 있어 이채롭다. '정의(貞懿)'는 1608년(광해 즉위년) 8월에 광해군이 모후인 그녀에게 추가로 올린 휘호다. 이 경전을 필사한 1621년에 인목 왕후는 서궁(西宮)에 유폐돼 암울한 시간을 겪고 있었다. 이미 1618년(광해 10)에 앞서 받았던 존호도 몰수당하고, '대비' 대신 '서궁'이라 불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발원문에서 인목 왕후는 본인을 여전히 '소성 정의 왕대비'라고 칭하고 있어, 큰 어른으로서 지녔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발원문에서 인목 왕후는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주변인들의 순으로 이름을 열거하고 이들이 정계(淨界)를 넘어 함께 아미타를 보고 속히 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랐다. 고인이 된 아버지 '연흥부원군 김제남'과 당시 제주도에 유배됐던 어머니 '광산부인 노씨', 아들 '영창대군 이의', 친정 형제들인 '목사 김래(牧使 金琜)', '진사 김규(進士金珪), '유학 김선(儒學金瑄)'의 순으로 열거했다. 다음으로 큰아버지인 '현령 김효남(縣令金孝男)', 형부 '현령 심재세(縣令沈挺世)', 인척으로 짐작되는 혜인 정씨(惠人鄭氏)와 온인 김씨(溫人金氏), 본인을 시봉했을 상궁 김씨(尙宮金氏)와 같은 여성 인물들의 이름을 적었다.

인목 왕후는 이 불사에서 비롯된 공덕이



백지금자 〈불설아미타경〉, 조선 1621년, 절첩본, 종이에 금니와 은니, 각 19.7×8.6 ㎝, 전체 19.7×319.0㎝,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기증. 사진=호암미술관



백지금자 〈불설아미타경〉의 발원문, 조선 1621년, 절첩본, 종이에 금니와 은니, 각 19.7×8.6㎝, 전체 19.7×319.0㎝,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기증. 사진=호암미술관



백지묵서 〈금광명최승왕경〉 권2의 시작 부분, 조선 1622년, 각 34.6×12.0㎝, 절첩본, 동국대학교박물관. 사진=e뮤지엄



백지묵서 〈금광명최승왕경〉 권7의 발원문, 조선 1622년, 각 34.6×12.0㎝, 절첩본, 동국대학교박물관. 사진=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룡을 한 마리씩 자수하고, 표지의 나머지 공간에는 칠보와 연화 무늬를 수놓아 꾸몄다. 표지는 서궁 유폐 시절 인목 왕후를 옆에서 모시던 궁녀가 자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불설아미타경〉의 표지는 녹색의 당초 무늬 비단을 이용해 별도로 만들어졌다. 표지 중심에는 붉은색 비단을 붙인 후 이중으로 방형의 틀을 구획해 제첨을 마련했다. 제첨 안에는 '학립사횡(鶴立蛇橫)' 부호와 '불설아미타경 전(佛說阿彌陀經 全)'을 먹으로 썼다. 학립사횡은 경전을 펼 때 읽는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을 상징하는 부호이다. 제첨의 좌우로는 황

극락에서 다시 만날 그리운 이들

계축옥사로 인해 희생된 피붙이들과 내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것이야말로 인목 왕후의 불사를 관통하는 가장 간절한 염원이었다. 앞서 살펴본 〈불설아미타경〉의 발원문에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발원문에 의례적으로 보이는 선왕이나 선대 왕실 가족들에 대한 추선(追善)과 현 왕실에 대한 축원(祝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불설아미타경〉의 발원문에서 파악되는 인목 왕후의 바람은 그녀가 다음 해에 서사한 〈금광명최승왕경〉의 발원문에서도 보인다. 〈금광명최승왕경〉은 전체 10권 10책으로 구성된 절첩본의 사경이다. 권1은 표지만 남아 있으나 권2에서 권10에는 각 권의 말미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발원문이 있다. 두 사경은 발원문 내용은 물론 표지 꾸밈에도 공통점이 많다. 표지 중앙에는 붉은 비단을 붙이고, 그 중앙에 학립사횡 부호를 표시한 후 '금광명최승왕경 권제이(金光明最勝王經 卷第二)' 같은 식으로 제목을 묵서했다. 제목 좌우에는 연화와 칠보 무늬 등을 수 놓아 표지를 장식했다.

발원문은 '소정 정의 왕대비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 손수 써 완성한 금광명최승왕경 1건[昭聖貞懿王大妃 特爲己身手書成 金光明最勝王經一件]'이란 구절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재앙과 어려움이 소멸되고, 나쁜 사람을 멀리하며, 좋은 일과 경사를 항상 만나고 마음속 바람이 뜻대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왕후는 발원문에서 영원히 여자의 몸을 떠나서 속히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 무량수불이 계신 곳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기원했다. 또 부모와 동기, 충직한 비(婢)와 아이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 살고 같이 즐기며 잠시도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기를 빌었다.

이어서 조부모인 영의정 김오(金祺) 양주를 시작으로 아버지인 연흥부원군 김제남과 어머니 광산부부인 노씨, 아들 영창 대군 이의와 딸 공주 이씨를 열거했다. 그다음으로 형제들인 김래, 김규, 김선을 적은 후, 친척들인 김효남, 심재세, 온인 김씨, 혜인 정씨, 아기 춘근(阿只春根)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상궁 5인과 전의(典衣, 내명부 정7품 궁관) 3인을 적었다. 궁인들의 품계와 성씨, 이름까지 빠짐없이 다 적은 데에서 인목 왕후가 동고동락했던 이들에게 느꼈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어지는 발원문에는 사경의 조성 당시 살아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바람이 기재돼 있다. 먼저 유일한 혈육인 정명 공주의 수명이 연장되고 복록을 오래 누리며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업장이 소멸하고 재난이 모두 없어지기를 발원했다. 뒤를 이어 전선(典膳, 정7품 궁관)과 전언(典言, 종7품 궁관) 등 내명부 궁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영화 복록을 누리고 목숨을 다한 후에는 서방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빌었다.

복권 후에도 이어진 간절한 기도

인목 왕후는 1623년(인조 1) 3월에 인조가 일으킨 반정이 성공하자 복권돼 명예를 회복했다. 대왕대비가 된 이후에는 근기 지역의 여러 사찰에서 추복 불사를 활발히 벌였다. 1624년(인조 2)에는 비구니 예순(禮順, 1587~1657)에게 명해 삼각산 청룡사(靑龍寺)를 중창하고, 화장사(華藏寺)에 모셔 두었던 영창 대군의 위패를 청룡사로 옮겨 와 천도법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또한 안성 칠장사(七長寺)를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 대군을 위한 원찰로 삼고 중수하는 등 서궁 유폐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불사를 적극적으로 이어 갔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마음으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심력을 키우세요



그림 · 최주현

울산의 여러분과 더불어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이 말은 하지 않아도 전부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철 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너희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떠날 때는 너희 몸뚱이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한 철 걸망 짊어지고 캠핑 나와서 놀다가 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네 탓 내 탓을 다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성질 때문에 집안이 홀딱 망하는 수도 있고 파산이 되는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일체 만물만생도 역시 우리의 스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물은 그 안에 만 생명을 넣고 굴림을 굴리면서 리드해 나가는데도 걸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면 '아, 물이 말을 하는구나. 물이 나같이 살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도 그냥 길을 가듯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 나무들도 모두 자기와 같이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돌이나 산천초목들도 다 살아 있고 움죽거리고 찰나찰나 화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신세계 50%에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도 물질계의 50%와 더불어 같이 상응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그 모습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살림살이와 동물과 생물, 일체 만물의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원만 다르고 모습만 다르다뿐이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니 어디 그게 둘이겠습니까? 만물만생이 다 나같이 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도 나도 모두가 나투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 둘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모두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당신 혼자만 높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이 제가끔 높다는 겁니다.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높고 거지는 거지대로 높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제가끔 높으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래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그대로 쉬는 것도 없고 쉬지 않는 것도 없이 여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여래의 집이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바로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의미는 만물만생의 생명, 그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자체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두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각자 생명의 근본이 있고, 말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달하면서 돌아가니 모두가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없이는 세상에서 창조력을 기를 수도 없고 창조를 해낼 수도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잘못됐든 잘됐든 부딪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아서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모든 중생과 부처가, 일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애고든 병고든 천차만별의 문제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밖으로만 찾습니다. 명이 짧다 하면 칠성님한테 빌고, 가난하고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보살 찾고, 병이 들었다 하면 약사보살 찾고, 물에서 위험할 듯하면 용신을 찾고, 길을 가다가 위험할 듯하면 지신을 찾고…. 여러분, 한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것을 오는 대로 어떻게 타의에다가 상대를 두고 빕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 봤자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나지 않으며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발견해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노예로서 세세생생 끄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려니 이렇게밖엔 말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 병고가 오면 '야, 내 깊은 한마음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병고도 나온 거니까 낫게 하는 것도 거기 아닌가. 네 시자를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고 거기 놔야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또는 명이 짧다 하면 안에서 칠성이 됩니다. 금방 화해서 칠성 부처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한마디 할까요? 가정에서 살면서 때에 따라서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들이 됐다가, 금방 형이 됐다가,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면 "왜 그래?" 하고 그 행동과 말과 뜻이 그대로 남편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도 "아버지!" 하면 금방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대로 나투는 것입니다.

어떠한 애고에 대해서 모든 거를 놓을 때는 자동적으로 산신도 되고 칠성도 되고, 병고가 있어서 거기에 되돌려 놓을 때는 바로 약사가 되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서 놓을 때는 바로 지장이 되고…, 그 한군데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굴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름해서 수레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가 되돌려 놔야 됩니다.

내가 한번 비유를 해 볼까요? 오신통에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고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주인공에 되돌려 놓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지름길이다

☞ 19면에서 계속

숙명통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라고 말해도 됩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입력을 해야만이 나오지만 마음의 컴퓨터는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그 업식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오는 대로 주인공에 되돌려 놓으라고 하느냐 하면, 주인이면서도 주인이 없고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이름해서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체가 다 나지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딪침도 있고 화도 나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그런 이치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라면, 바로 되돌려서 거기다가 놓는다면 새로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 생각 생각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없다면 목석일 것이고 그걸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찌 목석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자기를 수행시킬 수 있는 과정, 바로 인간 수행의 길이라고 봅니다. 망상이기 이전에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요, 생각을 못 하면 목석이요, 생명이 없으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놓으란다고 해서 뭐, 재산도 뭣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놓지 않고도 놓을 수 있고, 놓았다면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게 아니니 자긴 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영원히 자기 것도 아니요 영원히 붙들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카세트에 노래를 녹음했다가 다시 노래를 녹음하면 그 앞서의 노래가 지워지듯이, 되돌려 놓으면 먼저 것이 지워지면서 입력이 다시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지름길이며 그대로 여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뭣고?' 하고 있는데 뭐긴 뭡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나오기 이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싹이 돼서 화했더라. 그 싹에서 수박이 열려서 씨가 그 안에 있으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수박씨는 현재 자기한테 있으니 바로 수박을 그냥 쪼개서 맛을 보고 씨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뭣고?' 하고서 10년 20년이 가도 도대체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으로 과거 씨를, 내가 나오기 이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다 들어 있으면서도 둘 아니게 공하여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역력히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몸 안에 악업 선업이 수십억이 들어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다들 아시지요?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것을 왜 주걱으로 그렇게 쳤는지, 무슨 까닭으로 "문수다! 문수다!" 했는지 그 뜻을, 그 뒷면을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되돌려 놓으라는 그 뜻도 그와 똑같습니다. 망상이든지 뭐든지, 우리의 마음이, 안에서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딴 데서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 일어나듯 하는 겁니다. 딴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하고 주걱으로 치듯이 놓아야 합니다. 왜냐? 팥죽 방울이 올라오는 게 바로 마음 일어나는 것, 생각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일어나는 것이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팥죽 방울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팥죽 솥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팥죽 솥이라면 바로 팥죽 방울이 망상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법, 저것도 법, 그것도 법이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냈으면 법신이요, 움죽거리면 바로 화신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건 자기가 뜻을 이루어서 그거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귀감이 되고 여러분한테 법을 전한 것도 됩니다.

우리가 모습만 보고 이름만 듣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오신통이라는 통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통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모든 것은 마음에 다 되돌려 놓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말로 그 몸뚱이를 잡으려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심력을 키우는 것만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아야 불이 번쩍 들어오듯이, 내 주인공에다가 되돌려 놓으면, 모두가 가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부부, 자식, 부모라고 알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와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내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들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야지 일일이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걷다가 엎어지면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일어나지죠?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있어서 나한테서 나온 거라면, 나한테 부닥치는 거라면 나한테다가 되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그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아니 바깥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그게 일어나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귀머거리에 절름발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땅에서 걸어가다가 엎어졌으면 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상대를 두고 믿는 것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도 양 무제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당신이 시주를 아무리 했어도 공덕이 없다고요.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지만 죽었으면서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내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고 하지마는 부처님께선 오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신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한 그대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요, 아까도 과거요, 일 초 전도 과거입니다. 지금 지구가 버스라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네 자리 내 자리, 네 거 내 거 하면서 뺏고 싸우고 야단법석들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멀고 가까움도 없으니 이 지구를 훌떡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묘하고 광대무변하고 자유자재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식으로 인해서, 관습으로 인해서 '이거를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꼭 될 거야.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마음으로써 탈피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항상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죽을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고 또는 산다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스님으로서 입산을 하고 다른 친구는 집에서 살았더래요. 그런데 집에서 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입산한 친구 스님을 청해서 "우리 어머니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오." 하고 부탁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휴, 이 세상에 오지나 않았더라면 갈 것도 없을 걸 갖다가 그랬어." 하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오지나 않았으면 갈 것도 없지." 하고 말입니다. 허허허….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찌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고 내일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마음을 잘못 씀으로써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꼭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업식 말입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두 그 무명을 쓰고 나옵니다, 어떤 무명이든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의 무명만 쓰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올 것이고, 개구리같이 살았으면 개구리 무명을 쓰고 나올 것이고, 짐승같이 살았으면 짐승의 무명을 쓰고 나올 것이고….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땅속의 벌레로 무명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도 금 사람이 있고 깡통 사람이 있고 넝마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러니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썼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닥쳐오는 것이고,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올 것입니다. 미래의 오늘! 그래서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러니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천당도 이 자리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어렵고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모습을 쓰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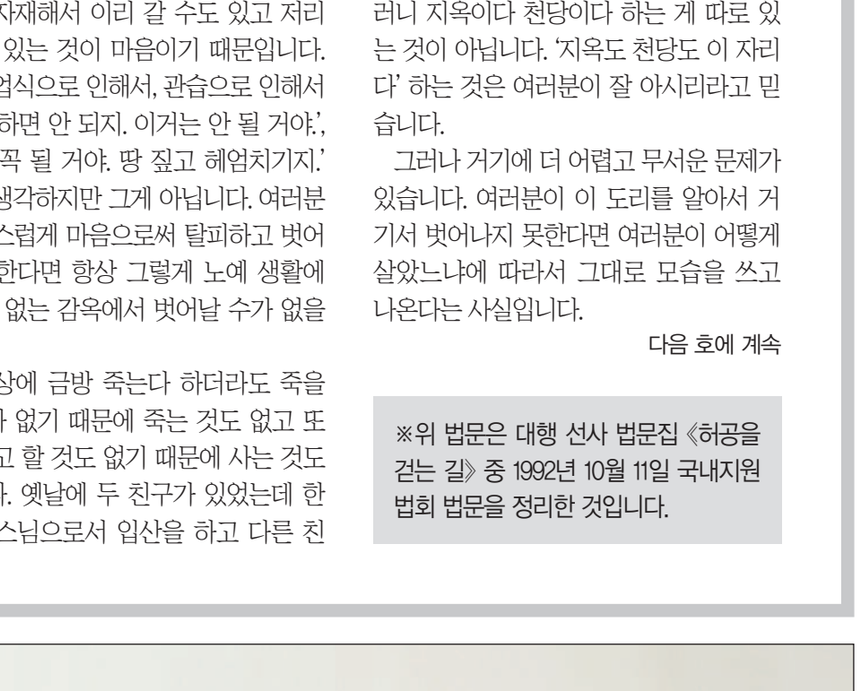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마음으로써 탈피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항상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0월 11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㊼ 육군비구를 제재한 부처님, 학교폭력(3)

차별하는 마음이 폭력의 씨앗

"베트콩, 미안해."

당진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피해 학생이 들은 사과는 비아냥뿐이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냄새가 난다",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는 조롱을 당했고, 삽에 머리를 맞는 신체적 폭력까지 겪었다. 피해 학생은 "휘두르지 말라고 했지만, 제 주변에서 더 휘둘렀고 그러다 맞았다"고 말했다. 작은 차별심이 경멸로, 경멸이 결국 폭력으로 번져 가는 과정을 보여준 사건이다.

학교폭력은 흔히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그 뿌리를 들여다 보면, 폭력의 핵심에는 '경멸'이라는 태도가 자리한다.

경멸은 타인을 존중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며, 쓸모없고 열등하다고 낙인찍는 심리다. 사실 경멸의 시작은 아주 작은 차별에서 비롯된다. 피부색, 말투, 가정 환경, 성별과 같은 다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적 수준, 집안의 경제적 형편, 체격과 외모, 패션이나 말투, 심지어 좋아하는 취미나 성격적 특성까지도 차별의 근거가 된다.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할 다양성이 오히려 열등함의 꼬리표로 바뀌는 순간, 차별의 마음 자체가 이미 폭력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가해자는 자신이 더 크고 힘이 세며 잘났다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한다. 여기에 또래 집단의 묵인과 사회적 교육의 부재가 더해지면, 차별과 경멸은 곧 폭력의 정당화로 이어진다.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집단의 침묵 속에서 강화된다. 분노가 순간적 불꽃이라면, 경멸은 집단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불씨가 된다.

이러한 경멸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언어적 괴롭힘은 가장 흔하고 실행이 쉬운 형태다. "냄새가 난다",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어 폭력이다. 욕설과 조롱, 성적 희롱, 가정 환경을 들먹이는 비하 발언, 인종 차별적 별명까지 포함된다.

신체적 괴롭힘은 때리기, 밀치기, 발길질처럼 눈에 잘 띄는 폭력이다. 교과서나 소지품을 빼앗아 찢거나 부수고, 책상에 침을 뱉는 행위처럼 모욕과 위협을 동반하기도 한다. 단순한 싸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피해 아동에게 남는 것은 신체적 상처만이 아니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지속적인 공포감이다.

관계적 괴롭힘은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이다. 따돌림과 고립, 집단적 배척을 통해 피해자를 공동체에서 지워 버리는 방식이다. "그 아이랑 어울리면 너도 이상한 애로 보일 거야"라는 말 한마디가 또래 집단에서의 지위를 무너뜨린다. 험담과 소문은 직접 들리지 않아도, 피해자는 주변 시선과 태도를 통해 자신이 고립됐음을 감지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멍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관계적 배제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으로 작용하며 우울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별–경멸–폭력의 고리 끊어야
피해자 존중하는 자비 실천 필요

가해자의 유형은 여러 갈래로 나타난다. '기고만장형'은 교만과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타인 위에 군림하려 한다.

'사회형'은 소문과 험담으로 대상을 교묘히 고립시키며, 겉으로는 사교적이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냉혹형'은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괴롭힘 상황에서는 잔인하게 변한다. 또 '과잉행동형'은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이 밖에도 자신이 당한 상처를 약자에게 되풀이하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형', 집단에 기대어 폭력에 가담하는 '집단형', 전략적 동맹을 통해 세력을 넓히는 '조폭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하다.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스스로 주목받고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자리한다. 불안정한 자아가 타인을 깔아뭉개며 드러나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방어다.

부처님 시절에도 공동체 내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육군비구(六群比丘)'라 불리던 이들이다. 이들은 출가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무리를 지어 다니며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수행은 뒷전이고 더 좋은 공양을 받는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스님을 몰아내는 데만 몰두했다. 그들의 행동은 공동체를 흔들고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는 원인이 됐지만, 부처님은 이를 방치하지 않았다.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않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새로운 계율을 제정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서도록 만들었다.

이 교훈은 오늘날 학교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단호한 제재와 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또래의 침묵과 사회의 방관을 끊어내야 한다. 차별이 경멸로, 경멸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경멸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무지를 깨뜨리는 길은 자비다. 학교폭력 문제 역시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바꿔야 할 무지의 구조로 인식해야 한다. 부처님 당시 계율이 그러했듯, 오늘의 교실에도 경멸을 멈추게 하는 규율과 교육, 그리고 피해자를 존중하는 자비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폭력의 불씨를 끄고, 존중과 공존의 공동체를 세우는 첫걸음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㊽ 골다공증

칼슘·비타민D 섭취와 규칙적 운동, 예방에 효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경직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뼈가 약해진 중년층 이상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골다공증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낙상 등으로 인해 뼈가 부러진 후에야 알게 돼,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나 고관절이 골절되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불편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고 회복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합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뼈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30대 중반부터는 뼈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며, 보통 폐경이 지난 여성이나 노년층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의 소실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이 감소하고 근육이 소실되며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남녀 모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한 번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골절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지만, 골다공증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뼈 구멍 많아 작은 충격에 쉽게 부러져
증상 없어 진행 전까지 알아채기 어려워
허리 통증·키 감소 시 골밀도 검사해야

나는 괜찮을까? 골다공증 자가 점검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폐경 후 여성이다.
□70세 이상의 남성이다.
□성인이 된 후 골절 병력이 있거나 1차 친족 중에 골다공증성 골절 병력이 있다.
□저체중이다.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한다.
□육체적 활동이 부족하다.

물론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D 섭취: 칼슘과 비타민D는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멸치, 해조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D는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연어, 달걀 노른자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뼈는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튼튼해집니다. 가볍게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 체중 부하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다면 비타민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골밀도를 낮추고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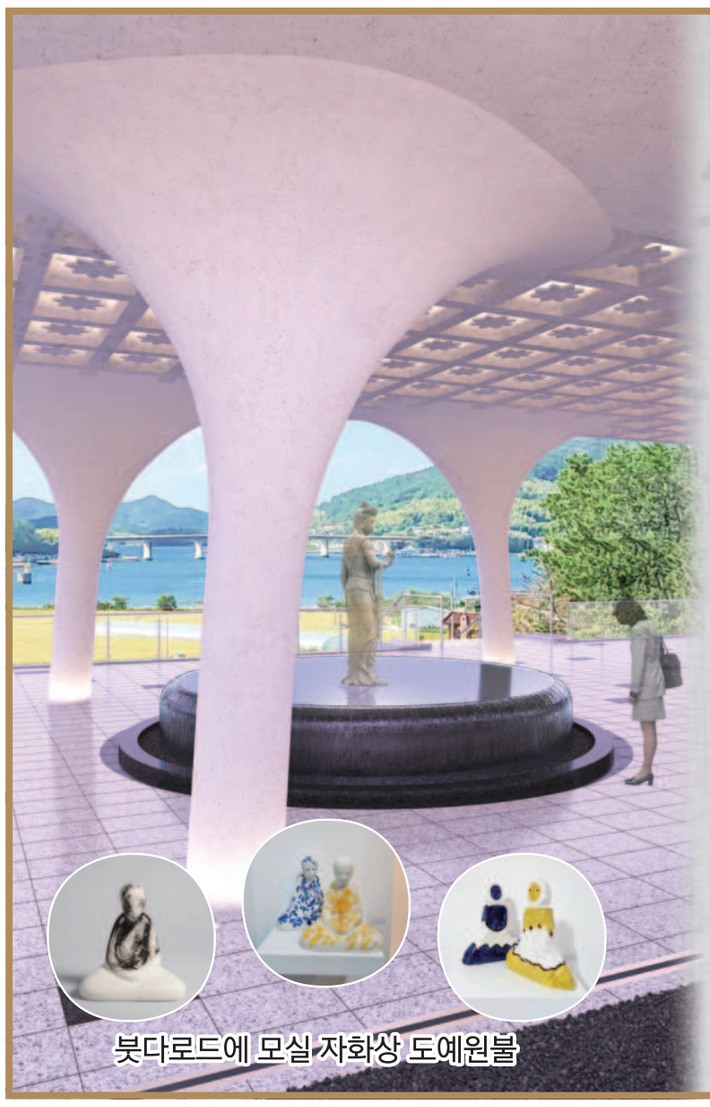
하지만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의 파괴를 억제하거나 뼈 생성을 촉진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물 복용을 통해 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튼튼한 뼈가 필수적입니다. 혹시 지금 허리가 아프거나, 키가 줄어든 것 같거나, '나는 혹시?'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여 골밀도 검사를 받아 보세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골다공증의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조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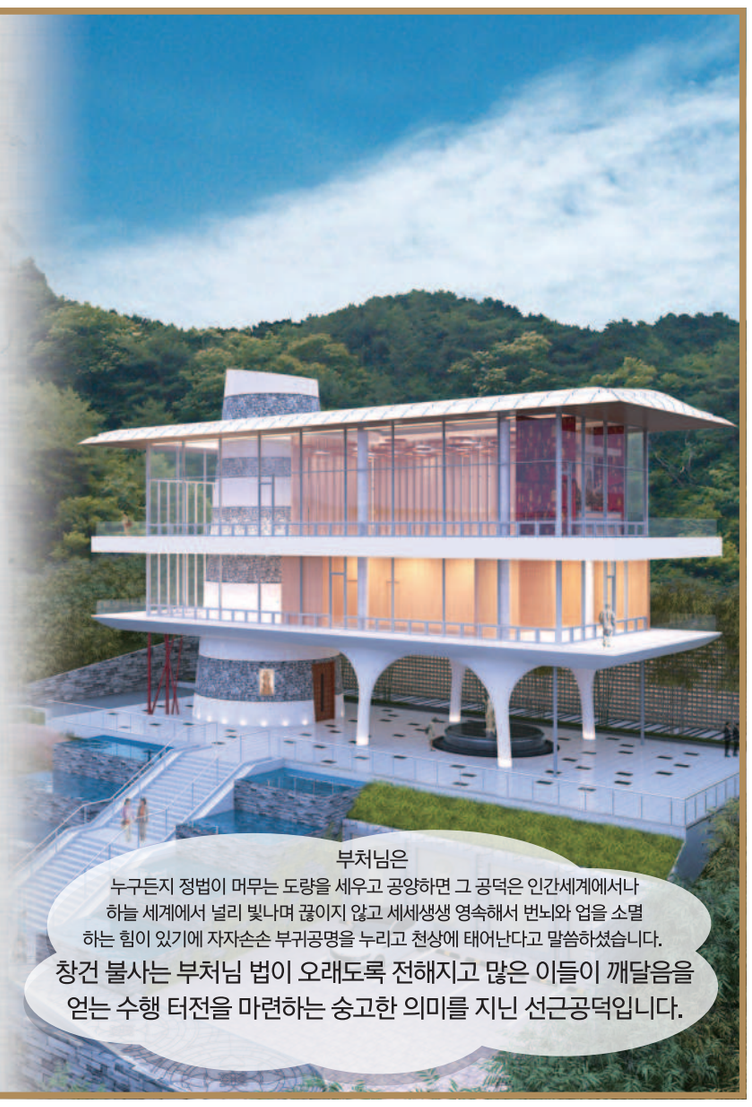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붐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

전법 일기

실천 중시·다양성 갖춘 합리적·논리적 종교, 불교

저는 모태 불자가 아닙니다. 불교를 처음 접한 건 2019년 대학에서 '불교철학의 이해'란 수업을 들으면서였습니다. 친구의 권유와 단순한 호기심으로 수강한 수업에서 아쉽게도 'C+'란 성적을 받았지만, 제게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론보다 걷기 명상, 호흡 명상, 자비 명상 등 명상을 매번 30분씩 진행하셨습니다. 명상 자체는 간단했지만,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업은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명상'과 연결 지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2020년 해군 입대 후 2021년부터는 진해 해군 부대 안에 있는 해안사(海安寺)를 매주 찾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자연스레 스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법회 대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고, 스님께서는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힘들었던 제게 그 시간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중·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매주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이해되지 않았고, 졸거나 떠들면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사에서는 달랐습니다. 스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 주기 위해 법회를 진행하지 않으셨고, 질문에 답해 주시며 제 생각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불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의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복학 후 '명상과 수행'이란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시 60명이었던 수업은 현재 100명 정원의 수업이 두 개나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수업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여러 종교의 명상법을 비교하며 명상이 특정 종교의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수련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강의의 과제는 자신만의 명상법을 개발하고 명상 일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수 혁오의 노래 'New born'을 2~3번 반복해서 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8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기타 리프가 반복되는 구조에 다양한 악기 소리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저는 기타 소리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명상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명상법을 개발하고 다른 학우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명상이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으로 저는 불교와 명상·수행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불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천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갖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불교동아리 회장 활동과 홍대선원과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불교동아리 회장으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산하 JustBe 홍대선원 프로그램 파트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⑳ 수식관의 호흡수행

원천적 수행으로 돌아가라

과학지상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나노 테크닉과 양자 역학이 보여 주는 경이로움,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가 초래할 신세계의 모습, 이러한 과학 기술의 양상은 위기감과 불안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일말의 공포감이 느껴진다. 삶 자체가 위험하여, 두려움 없는 '무유공포'로 인도하는 '원리전도몽상'의 선언이 과연 무색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천적 수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초기불전에서 소박하게 제시되는 수식관의 호흡수행은 '정신을 오로지하여 안반(安般)을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숨이 길 때는 지금 숨이 길다고 관(觀)하여 알고, 숨이 짧으면 마땅히 지금 숨이 짧다고 관하여 알며, 만약 숨이 지극히 차거나 지극히 뜨거우면 마땅히 숨이 차고 뜨겁구나 하고 관하며, 드나드는 숨의 길고 짧음을 분별하고 헤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수식관이 다시금 강조돼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는 호흡이 깊지 못하고, 천식 증세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세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조급함의 원인은 몸과 마음의 부실에 있다. 마음은 욕심으로 인한 이양(利養, 이익과 명예 등)에 덮인 것이다. 중생의 몸은 근본적으로 오염된 것이다. 그래서 안으로 '내심무천(內心無喘)'의 자세가 다시금 강조돼야 하고, '외식제연(外息諸緣)'의 당당함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부실이 조급함 이끌어
수식관 수행은 거친 마음 부드럽게
호흡에 집중하면 안정 찾고 몸 충전

〈치선병비요경〉에서 이르기를, '중생들 몸의 근본 종자는 다 더러운 것'이고, '이양을 바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해치고 선근을 못 쓰게 하는 것'이기에, '수식관의 수행으로 일심을 관하기만 하라'고 일러준다. 이 수식관은 양약(良藥)이므로, 이 약을 복용하는 그 자체로 이로움이 있다. 궁극에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될 만하다고 안내한다. 이 호흡을 통해 거친 마음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기에 자신의 주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설명한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것은 좌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저 고요히 앉아 무심의 상태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훈련이 깊어지면, 일상의 숨 가쁜 상황을 맞닥뜨려 지칠 때 양손을 아랫배에 얹어 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참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은 안정을 찾고 몸은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안반의 호흡법은 호들갑 떨면서 할 것이 아니다.

〈좌선삼매경〉 등에서는 호흡을 '수수지관환정'의 치밀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숨을 헤아림[數], 호흡을 따름[隨], 생각을 멈추고 집중하는 지(止), 있는 그대로를 조작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관(觀), 이 과정 전체를 하나로 되돌려 봄[還], 깊은 단계로 들어가 불순함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청정[淨] 등 여섯 가지로 섬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 호흡법은 훗날 여섯 가지의 신묘한 방편인 육묘문(六妙門)으로 정리된다.

〈마하지관〉은 육묘문의 행법을 기운의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제시한다. 여섯 가지의 기식(氣息)은 호흡을 우리 몸의 각 장기에 배속시키는 방법이다. 즉 장기가 냉하면 취(吹)를, 열이 있으면 호(呼)를, 아픔이 있으면 희(嘻)를, 번거로움이 가득하면 가(呵)를, 가래가 있으면 허(噓)를, 권태로우면 시(嘶)의 호흡법을 사용하라고 알려 준다.

〈작가〉

기자칼럼

종교 통계의 두 얼굴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10년 만에 '종교인구조사'가 포함돼, 각 종교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는 이미 전국 사찰과 교회, 교당 단위로 신도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카드뉴스, 유튜브, SNS, 공문 발송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신도들에게 응답을 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교를 묻는 자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종교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민간 전문 조사기관이 표본조사를 통해 종교 분포를 추정하고, 관련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즉, 국가가 강제적으로 종교를 묻는 것이 아닌 표본 기반 연구로 사회적 민감성을 낮추고 개인의 종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종교인구조사를 포함한 후 10년 단위로 4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종교인구조사는 자연스럽게 '각 종교계의 성적표'라는 꼬리표가 붙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올해 조사 결과도 중앙·지방 정부의 중장기 정책,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 민간 기업의 시장 조사 등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와 각 종교계의 경쟁적 분석과 비교 등으로 한바탕 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조사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가구 대표 한 명이 가족을 대표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해 구성원의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 응답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신도 수와 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다. 오랜 세월 각 종교가 쌓아 온 상호 배려와 신뢰가 이번 조사에 반영되려면 숫자 경쟁을 넘어 개인의 종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조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한국학 | 문광스님 신 행 | 광우스님 계 율 | 법장스님 불교사 | 자현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두계단 本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삼재팔난 시대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세간에서 회자되는 삼재(三災)는 자연재해인 화재, 수재, 풍재를 말한다. 재난 중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대삼재'라고 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소삼재'라고 한다. 소삼재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기근재',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질역재', 그리고 극렬한 갈등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도병재(刀兵災)' 등이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발생하는 고통에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의천고', 사회 구성원이나 지도자의 문제로 발생되는 '의외고', 내적인 정신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의내고' 등도 있다.

최근 지구촌은 다양한 재난들로 고통이 확산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미얀마 내전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갈등과 '도병재'가 횡행하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는 빠르게 위축되고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쟁은 패권 국가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세력과 변화시키려는 세력들이 국가 차원에서 충돌할 때 발생한다. 2025년 현재

불살생계 바탕 전쟁·폭력 반대 분명히
생명 존중·평화 추구 활동 전개 역할 주도
시대 선도 대승 보살 육성하고 활동 지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및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양상이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아래 유지된 세계 평화, 즉 팍스아메리카나가 끝나면서 빠르게 세계적인 전쟁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교는 불살생계를 바탕으로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생명 존중과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세계 평화가 특정 종교단체의 활동만으로 성취되기는 어렵지만, 세계인들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불교는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불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승 보살들을 육성·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연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웃 종교인들과 연대하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삼재팔난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 앞에서 주저앉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승 보살이 해야 할 일이다. 초발심 보살의 공덕이 삼계를 정화하고, 한량없는 사람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 주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줘야 할 때다.

한 생각의 변화가 무량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지혜가 무량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대승 보살의 신념이 필요한 때다. 우리 모두가 대승 보살의 길을 발원한다면 삼재팔난의 고통이 가중된다 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도쿄국립博, ICOM 윤리강령 지켜야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는 1946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2023년 현재 약 140여 개국의 박물관과 관련 종사자 4만5천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박물관 대표 기구다. 주요 활동으로 전문적·윤리적 박물관의 기준 정립과 국제사회에서 박물관 목소리를 대변한다.

ICOM 윤리강령은 제국주의와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미술품, 종교적 성물 등이 약탈·파괴·훼손되면서 강자(强者)의 창고, 전시장으로 전락한 박물관을 윤리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1986년 제15차 ICOM 총회에서 제정됐다. 이후 '윤리강령' 개명과 확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리강령은 이전의 문화재 제국주의 입장이 아닌, 문화재 국가주의 입장에서 박물관이 도덕적·윤리적이고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유산 피해국 입장에서 윤리강령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박물관 자료도 구입, 기증, 대여, 유증 또는 교류를 통해 수집할 수 없다.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도 그렇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약탈, 도굴, 강제 이송된 문화유산을 소장 중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은, 윤리강령상 '합법적 소유권'

ICOM, 국제사회서 박물관 대변
윤리강령은 문화재 국가주의 입장
문화유산 반환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을 입증해야 함에도 '취득 불명'이나 '기증'으로 처리하며 전시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서산 부석사 불상 사례와 같이 점유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약탈품을 대마도 시립박물관이 보관 점유하고 있는 점에서 윤리강령에 입각하면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일제강점기 수집 반출한 오구라 수집품의 경우,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이 1030점을 기증·양도 받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문화재 협정 때부터 반환을 요구했고, 도쿄국립박물관으로 양도된 후 1984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다. 이 점에서 '소장품의 출처지'와의 협력을 강조한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도쿄국립박물관이 얼마나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윤리강령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과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화를 개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박물관 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이 국제 및 국제 법령을 위반하여 반출 또는 양도된 것으로 확실시되는 박물관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것이 실제 요청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적·자연적 유산일 경우 관련 박물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 해당 박물관 자료의 반환에 협력하기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물관은 피점령지 영토에서 유래한 문화재의 구입이나 취득을 금지하고 박물관 자료의 반입, 반출 및 양도를 규제하는 모든 법과 협약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도쿄국립박물관은 ICOM 가입 박물관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은 ICOM에 가입해 비윤리적인 일본의 박물관을 비롯해 가해국의 불법 취득 문화유산의 원상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쟁투해 나갈 것이다.

社 說

헌법 정신을 흔들지 말라

정치 지도자의 언어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인 일련의 행보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지속적으로 발언해 왔다. 급기야 당 대표 자격으로 교회를 공식 방문해 "하나님의 종에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 공언했으니, 이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닌 공당 대표로서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그러나 장 대표는 공적 자리에서 종교적 언어로 정치 현안을 해석하며, 대한민국을 다종교·다문화 사회가 아닌 특정 종교 중심 사회로 비치게 했다.

가뜩이나 극단적 이념 대립과 국론 분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 갈등의 불씨를 더욱 부추기는 행태다. 불교계뿐 아니라 개신교 내부에서도 그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의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정치 지도자의 기본 책무다. 종교를 정치적 지지 기반 결집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 된다.

특정 종교에 치우친 언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치 지도자라면 종교적 중립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민주사회 지도자의 최소한의 품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에 부쳐

동국대에 26번째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이들 동아리 회원들은 조금은 특별한데 모두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종교를 중심으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은 흔치 않고, 불교에서는 첫 창립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에 소속된 불교동아리지만 연합체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동아리에는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전국 24개 대학 53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예비 대학생들도 포함됐다.

동국대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통해 2022년부터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왔다.

지난 8월 23~25일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16개교 23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울릉도 탐방을 진행하며 대학생 전법의 원력을 세우기도 했다.

자유를 꿈꾸며 사선을 넘어 탈북했지만 체재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회에서 탈북 청년들이 적응하기란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세세한 지원 및 관심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내 부처님 법 아래 모일 수 있게 됐다.

북한 출신 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은 전법·포교의 중요한 성패는 '관심'에 있음을 보여준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만이 탈종교세대들을 불연(佛緣)으로 이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계 품서식 봉행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 11월 10일 월요일 11시
▮장소 :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0월 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불교는 지금 나를 깨우는 새로운 언어다!”

‘절집의 숨은 고수’ 고광 스님이 40년 탐구 끝에 되찾은 진짜 ‘붓다의 말’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은 삶이 이해된다!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새롭게 다가오는 붓다의 말,
더욱 선명해지는 삶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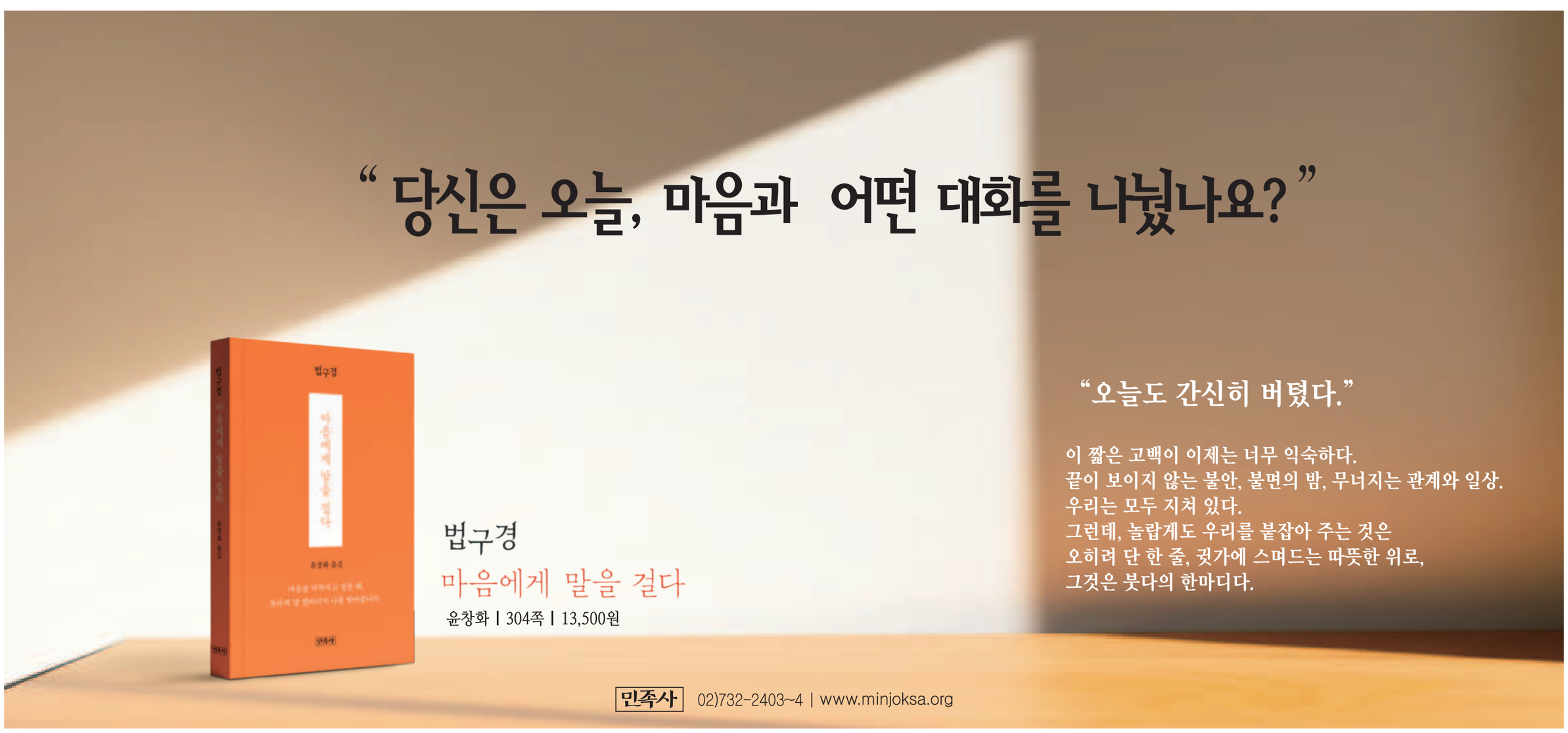


삶을 새롭게 하는 다섯 가지 지혜

1. 노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을 보는 눈이다.
2. 흔들리는 감정보다 드러난 사실을 붙잡아라.
3. 실패는 끝이 아니라 진실을 만나는 문이다.
4. 멈춰야 할 건 생각이 아니라 착각이다.
5. 다음 생을 꿈꾸지 말고, 지금 삶의 사용 설명서를 펼쳐라.

고광 스님
1985년 법주사 입산 출가. 한국과 미국, 미얀마에서 수행.
30여 년간 빨리어 니까야와 한역 경전 비교·분석 연구. 철저한 실증과
독자적 연구로 ‘붓다의 깨달음’을 직접 확인 검증한 ‘절집의 숨은 고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
윤창화 | 304쪽 | 13,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